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94호

**2012년 여름 말까지  
북극해의 거의 모든 얼음이  
사라질 수 있다  
(NASA 기후 보고서)**

핫 토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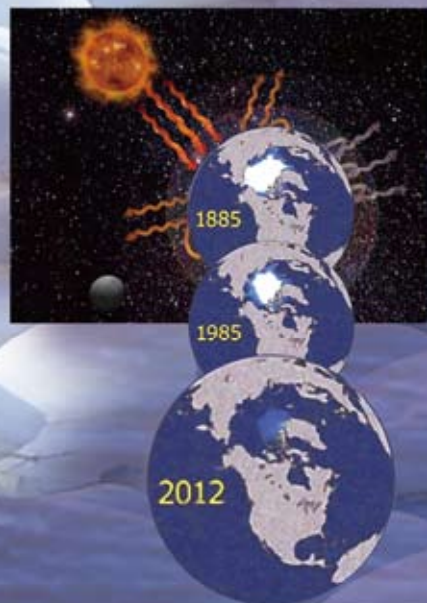
- ☆ 북극 빙하 해빙을 저지할  
행동을 취하자
- ☆ 채식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스승님 말씀

- ☆ 기후변화와 우리의 수행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SUPREME MASTER  
TELEVISION

12 개 위성을 통해 전세계 시청자들을 찾아가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인터넷 시청 [www.SupremeMasterTV.com/kr](http://www.SupremeMasterTV.com/kr)





# 기후변화와 우리의 수행

청하이 무상사/ 2007. 12. 23.  
프랑스 파리 크리스마스 선행사 (원문 영어)

**먼** 저 이 행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자기 장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대로 사람들이 바로잡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4, 5년 후에는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정도로 시급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더 열심히 수행하세요. 4, 5년이란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명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일분일초라도 아껴서 명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성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십시오. 예를 들어, '대안적인 삶' 전단을 가지고 나가 돌리고,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고 나무를 심고 전기와 물 등을 절약하라고 알려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큰 도움은 되지 못해요.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면적으로 그것을 멈춰야 해요. 어쨌든 난 최선을 다해 왔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인류가 잘못 인도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그들은 정말 모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장님 한 사람이 다른 장님을 이끌어서 모두가 구렁이에 빠지고 그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난 정말 안타깝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내가 계속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준 모든 좌절과 슬픔, 불합리한 대우,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의 모든 압박감과 갖은 불공평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일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정말 대단히 잘못 인도되었습니다. 일단 그 방향에서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되돌리라고 일러주는 사람조차 없지요.

해저엔 아주 많은 유독 가스가 있습니다. 만일 극지방의 빙하가 모두 녹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바다에서 가스가 방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바다에서 나오는 가스에 중독될 것입니다. 그뎨 홍수나 기후온난화에 대해선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해수면이 따뜻해지면 가스가 방출됩니다. 지금은 해저의 온도가 낮



기 때문에 가스가 해저에 머물러 있지만,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지면 가스가 방출될 겁니다. 그 양은 모두를 죽이기에 충분하지요. 우린 아주 간단하고도 빨리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통은 없을 테니까요. 가스로 죽게 되면 고통스럽지는 않으니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홍수로 죽거나 기후변화로 인해 구워지며 서서히 죽는 것보다는 낫지요.

기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가 따뜻해지면 다른 것도 따뜻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바다가 따뜻해지면 빙하가 녹게 됩니다. 빙하가 있을 때는 태양열을 반사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다가 빙하를 녹일 만큼 따뜻해져서 열을 반사시켜 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가 더 따뜻해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계산해 내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이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계속 따뜻해지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끝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논리적이지요. 과학자라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믿을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빙하가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주로 돌려보내는데, 지금은 빙하가 너무 빨리 녹고 있어서 충분한 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다가 이미 따뜻해졌기 때문에 빙하를 녹이고 있지요. 빙하가 녹기 때문에 바다는 더 따뜻해지고요. 악순환이에요. 더 깊이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경고해 왔습니다. 10년 전인가 15년 전 내 싱가포르 강연을 보면 내가 이미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는다고 경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도 난 항상 우리가 어떻게 지구의 삼림을 남별하고 있는지, 고기를 먹는 것 등이 우리 지구 행성에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외에 내가 뭘 더 하겠어요? 때로는 이미 포기할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린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다면 지구를 구하는 것이고, 구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나는 그들이 좀더 빨리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필요한 건 바로 행동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계 모든 정부가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유엔은 이미 그것을 선언했고, 미국과 중국도 모든 방면에서 배출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난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너무 느릴까 봐 염려하는 것뿐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러분에게 더 많이 명상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명상을 더 많이 한다면 어쩌면 변화가 생겨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것도 좋지요. 최소한 여러분의 명상의 힘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

스승님의 1995년 싱가포르 강연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Godsdirectcontact.us/sm21/enews/www/044/ms.html>

북극 빙하 문제와 관련한 NASA의 최근 보고서를 보거나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veg/video/NASA-e.php>



### 뉴스잡지 194호



출판일자: 황금시대 5년(2008년) 8월 16일  
 설립년도: 1990년 4월 1일  
 발행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Hsieh Hsin-lin  
 인쇄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인터넷 상에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는 뜻인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들이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영성 교양과 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십니다.

-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기후변화와 우리의 수행
- 05 다채로운 이벤트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호주/ 가봉/ 아제르바이잔/ 코스타리카/ 미국/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홍콩/ 포모사
- 16/ 50 특별 보도  
축복받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스승님과 함께 보낸 제야/ 2007년 구시 평화상 시상식
- 19 핫 토픽  
북극 빙하 해빙을 저지할 행동을 취하자/  
채식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25 채식 시대  
축산업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 주는 네덜란드 영화
- 26 빛나는 세계 영웅상  
소년 영웅의 기지가 사람을 구하다
- 28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아낌없는 지원/  
다이애나 칼라트바리-희망과 자비의 사자
- 30 빛나는 세계 자비상  
스틸 여사/ 오피르 드로리 씨/ 호앙 쫁 랍 씨/ 양웨이링 양/ 뒤희름 양/  
동물을 보호하는 사랑의 본보기
- 33/ 51 스승님의 농담  
공동된 느낌/ 형 대신 앉아 있는 거예요
- 41 빛나는 세계 영웅상  
데코-용감한 수호천사
- 42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만물의 영장
- 45 주요 연락처
- 46 동물의 감성 세계  
탁월한 후각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코끼리/  
글자를 읽고 셈도 하는 똑똑한 암탉
- 47 관음 웹사이트
- 48 매체 보도  
칭하이 무상사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주문 쇄도/  
독자들이 칭하이 무상사의 신간을 환영하다
- 49/ 75 영혼의 고향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건본책자/ DVD
- 52 사랑의 실천  
멕시코/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인도/ 캐나다/ 미국/ 파나마/ 영국/  
대한민국/ 포모사
- 71 전세계 연락처
- 74 시  
스승님께 바치는 시

**동** 물에 대한 깊은 자비심과 아울러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우려의 마음에서 스승님은 직접 '대안적인 삶'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단을 디자인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계에 제시하셨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세계적인 질병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를 막고 동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살생을 멈추고 채식 생활을 선택하라고 일깨워 준다. 모든 동수들에게 세계 곳곳의 형제자매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라고 하신 스승님의 당부에 따라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스위스

### 우주의 스승

제네바 뉴스그룹 (원문 프랑스어)



**[제네바]**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네바 센터 동수들은 제네바에서 열린 '추계 자연요법과 자기계발 박람회'에 참여했다. 행사장 입구에 비치한 '대안적인 삶' 전단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자료는 관람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 여성은 내면의 비전으로 이미 칭하이 무상사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금발의 스승님 사진을 보고선 스승님이 온 우주에 속하는 깨달은 스승이라고 외쳤다. 또 한 여성은 전

에 심각한 빈혈로 고생했는데 고기를 더 많이 먹어 영양을 보충하라는 의사의 충고를 따른 후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는 사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고기를 그만 먹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가 자신의 직감에 귀 기울이자 병은 서서히 회복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여성은 자기 집 우편함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발견하고선 그 내용에 대해서, 특히 뒷면의 유명한 채식인들 명단을 보고 깊이 감명받았다. 그녀는 이토록 의미 있는 일을 통해 고귀한 삶의 방식을 살도록 전세계에 독려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무척 알고 싶었는데, 이날 박람회에서 마침내 그 답을 찾았다. 그녀는 동수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유익한 일을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제네바 동수들은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스승님의 축복 속에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 고귀한 삶의 방식을 열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하신 모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



## 이탈리아

## 시칠리아에 내린 진정한 축복

이탈리아 뉴스그룹 (원문 이탈리아어)

**[시칠리아]** 이탈리아 자치 구역인 팔레르모(Palermo)는 시칠리아의 수도이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영국 동수들은 이탈리아 동수들과 힘을 모아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강연회를 개최해 이 고대 도시의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관음법문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 3일 동안 시내 중심가·버스 정류장·기차역·대형 슈퍼마켓·주요 사적지·해변·주차장 등지에서 강연회 개최 소식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가 들어 있는 전단을 배포했다. 반응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였다. 스승님의 사진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알고 있어요.”라는 말도 자주 들렸다.



12월 2일, 팔레르모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두 차례의 강연회에 총 40명 정도가 참석해 그중 절반가량이 방편법을 배웠다. 모든 사람들이 스승님의 강연을 몰입된 채 시청했으며 새 방편법 수행자 대부분이 짧은 명상 시간 동안에도 놀라운 내적 체험을 했다. 한 청년은 너무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는 입문을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시바빠 알고자 했다. 또 다른 새 관음 가족은 스승님의 진동 속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느껴 우리 모두를 멋진 피자집으로 데려갔다. 강연회는 환상적인 저녁과 함께 막을 내렸다!

팔레르모 흥분을 대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시칠리아에 진정한 축복을 내려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 영국

## 요가 쇼

런던 뉴스그룹 (원문 영어)

**[런던]**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런던 근교 올림피아(Olympia)의 ‘국립회관’에서 ‘요가 쇼’가 열렸다. ‘요가 쇼’의 모든 관람객들과 메시지를 나누고자 런던 센터 사형사저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 ‘대

안적인 삶', '관음법문 명상법',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등 16가지 전단이 들어 있는 선물 가방을 무료로 배포했다.

우리 부스에 걸어 둔 대형 현수막은 전시회장의 150여 개 부스 참가자들과 9천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과 긍정적인 뉴스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더 뚜렷하게 상기시켰다. 스승님의 신간인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은 대중들의 따뜻한 호응을 얻었는데, 특히 요가 스승들과 수행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한 요가 스승은 이런 긍정적인 뉴스를 접할 수 있길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가 학원에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홍보해도 되는지 물었다. 또 자신의 앵무새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한 여성은 우리 부스에 전시됐던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받고 매우 감격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박람회는 멋지게 막을 내렸다. 




## 호주

# 호주 영화관에서 홍보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선사인코스트 뉴스그룹 (원문 영어)

**[선사인코스트]** 영화관은 항상 방학 중에, 특히 크리스마스 때에 인기가 많다. 그래서 동수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짝막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 영상물을 만들어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22일부터 두 달 동안, 호주 퀸즐랜드에 있는 극장 세 곳에서 상영하기로 했다.

음성 해설이 곁들여진 15초짜리 광고는 현재 브리즈번 북쪽 100km 지점에 위치한 마루치도르(Marochydore) 극장(3개 상영관), 퀸즐랜드 북쪽 끝에 위치한 케언스(Cairns) 극장(2개 상영관), 브리즈번 북쪽 650km 지점의 록햄프턴(Rockhampton) 극장(2개 상영관) 등 세 개의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이 광고는 주 7일, 하루 5회 상영되고 있어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이 최신 영화 히트작을 감상할 때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깨달음을 주는 TV 채널을 알 기회를 제공한다. 



퀸즐랜드 극장에서 상영되는  
15초짜리 광고 영상물의 스틸컷.





## 가봉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축복이 넘치는 파도를 타고

하디 사헬/ 가봉 (원문 영어)

**[가봉]** 아프리카 가봉 동수들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얻은 긍정적인 반응에 큰 감동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전단을 나누는 일을 도와주었는데, 한 인터넷 카페 주인은 자청해서 자기네 고객들에게 전단을 나누어 주었고, 복사 가게 주인은 전단 내용을 읽은 후에 무료로 복사해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복사비는 안 받겠어요, 여러분이 나에게 준 이 전단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겁니다. 이 채널을 볼 수 있도록 위성 접시를 설치할 겁니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16일, 동수들은 가봉의 가장 큰 신문인 『뤼니옹(L'union)』지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한 광고를 실었다. 긍정적인 무료 채널을 발견하고 기뻐한 대중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했으며, 그들은 집에서 이 방송을 수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했다. 🌸

## 아제르바이잔

## 아제르바이잔의 열렬한 반응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영어)

**[바쿠]**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5일, 포모사 동수들의 도움으로 ‘메디자드 박사-아제르바이잔의 고귀한 성인’이라는 제목의 반면 기사가 아제르바이잔의 최대 신문인 『아자드리그 뉴스(Azadlig News)』에 게재되었다. 이 신문은 터키로 나가는 5,000부를 포함해 매일 29,000부가 발행된다. 그후로 『아자드리그』에는 날마다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에 관해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 왔고 100통 이상의 편지가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와서 스승님에 대한 더 많은 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편집장은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하면서 동수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열렬한 요청이 계속되자 편집장은 매주 칭하이 무상사에 대한 전면 기사를 신지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가 비영리 단체라는 것을 안 『아자드리그』는 기꺼이 최저 가격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도 메디자드 박사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던 까닭에, 2008년 1월 1일 신년 특집호에는 그가 번역한 스승님의 강연 ‘이 세상 너머의 신비’를 일부 실은 ‘메디자드 박사와 칭하이 무상사’라는 제목의 전면 기사가 실렸다. 다음 주에 나올 기사도 이미 『아자드리





그』에 제출되어 번역 중에 있다.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데다 아주 열렬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아제르바이잔을 축복해 주신 신께 감사드린다! 🌸

## 코스타리카

### 감사의 표현

산호세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산호세]**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21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코스타리카 국회의원인 호세 마누엘 에찬디(José Manuel Echandi) 씨에게 스승님의 책과 채식 크리스마스 케이크, 선물, 초콜릿과 함께 감사 편지를 전했다. 에찬디 씨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새로 추가된 위성 채널로 전세계 방송을 시작했을 때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격려가 담긴 축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에찬디 씨는 이런 채널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한 행복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 채널이 새로운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사람들의 의식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대중들에게 방송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채널을 통해서 코스타리카의 고유문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



## 미국

### 자비로운 명절 저녁 식사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 제4회 추수감사절 파티

**[플로리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18일, 플로리다 동수들은 플로리다 롱우드(Longwood)에서 열린 제4회 추수감사절 저녁 파티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자비로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채식과 건강한 식생활, 동물에 대한 사랑을 장려할 목적으로 ‘플로리다 동물권리재단(Animal Rights Foundation of Florida, ARFF)’에서 주최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주장 개들을 구하는 ‘그레이하운드 구조(Greyhound Rescue)’ 단체들을 위한 기부금도 모았다.





비건 건강 요리-두부 칠면조.

우리 동수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담요와 기름, 통조림 식품을 동물 친구들에게 기부하고 스승님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을 전시해 사람들에게 선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대접한 음식은 모두 비건(유제품과 계란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 채식) 요리였다. 주된 요리 중에는 전통 칠면조 요리를 대신한 ‘두부 칠면조’도 있었다. 플로리다 동물권리재단의 몇몇 회원들은 우리 동수들



이 준비한 음식에 감동해 조리법을 묻기도 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1년 넘게 채식을 해 오고 있는데, 그들은 채식, 그중에서도 비건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자비로운 식생활이라고 여겼다. 한 여성은 그날의 모든 멋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며 명절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동물 친구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명절을 보내는 날이 곧 오기를 우리 모두 기도한다.



## 제9회 연례 명절 만찬

12월 8일, 우리 동수들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비건 식당 ‘가든카페(Garden Cafe)’에서 ‘플로리다 동물권리재단’이 주최한 ‘제9회 동물들을 위한 명절 만찬’에 다시 한 번 참석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 파티의 주제는 채식주의를 강조하는 것이었는데, 행사장 분위기가 매우 생동감이 넘쳤다. 초대 손님으로 참석한 카렌 데이비스(Karen Davis)는 농장 동물, 특히 닭에 대한 학대 문제부터 ‘인도적인 고기’라는 잘못된 개념에 대해 연설했다. ‘가금류복지연맹(United Poultry Concerns)’의 기금 마련을 위한 추천식 판매가 밤새도록 계속됐으며, 그 상품 중에는 동수들이 기부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도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 동수들은 카렌 데이비스 여사를 만나고 이번 행사 주최자이며 11월 추수감사절 만찬도 공동 개최했던 브라이언 윌슨(Bryan Wilson) 씨와 인터뷰할 기회도 가졌다.



스승님의 책을 받은 참석자.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채식이나 비건 식생활로 바꾸려는 생각을 해볼 것이다. 동수들은 이처럼 우리 동물 친구들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히 여겼다. 사람들의 계속된 노력들이 성공을 이루고 세계 평화가 하루빨리 도래하길 기원한다. 🌱





## 즐겁고 영혼이 고양된 강연회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로스앤젤레스]**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15일, 로스앤젤레스 동수들은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공립 도서관 겸 역사 센터(Orange Public Library and Historic Center)’에서 대중들에게 관음 법문을 소개하고 방편법을 전수하는 강연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먼저 스승님의 인도주의적 업적과 생애를 소개하는 짧은 DVD에 이어 스승님의 강연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를 상영했다. 청중들은 강연 내내 스승님의 말씀에 신실한 관심을 보였다. 그런 다음 참석자들은 춘권과 샌드위치, 과자 등 맛있는 채식 음식을 맛보았다. 과자 포장지 뒷면에는 스승님의 감로법어가 붙어 있었다. 한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요. 스승님의 감로법어도 참 좋고요. 정말 참된 말씀이거든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마땅해요. 우린 아주 좋아합니다!” 한 남자는 “관음법문의 명상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에게 로스앤젤레스 센터의 단체명상 시간표를 제공해 훗날 그들이 방편자 단체명상에 올 수 있도록 했다.

로스앤젤레스 동수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지구가 황금시대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반영하듯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



## ‘히피 구르메’ TV 쇼에 감사를 전하다

새너제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새너제이]**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19일, 우리 협회를 대표해 새너제이 ‘베지테리언 하우스’ 동수들은 ‘히피 구르메(The Hippy Gourmet)’ TV 프로그램의 제작자 제임스 에를리히(James Ehrlich) 씨에게 지난 11월 ‘슈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12개 위성 채널을 통해 전세계로 첫 방송된다는 소식과 유기농 채식 식당인 ‘베지테리언 하우스’를 세상에 소개해 준 데 대한 감사장과 선물을 전달했다.



감사장과 선물을 들고 있는  
제임스 에를리히와 그의 아내 레나.

에를리히 씨는 액자에 넣은 감사장과 여러 가지 선물을 정중히 받으면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 대단히 감동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세계에 수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사랑을 전파하는 칭하이 무상사께 깊은 존경심을 나타냈다.

에를리히 씨와 ‘히피 구르메’가 계속 성공해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평화와 사랑, 즐거움을 가져다주길 기원한다. 🌸



## 말레이시아

## 제1회 채식대회의 성공적인 출발

쿠알라룸푸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쿠알라룸푸르]**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16일과 17일, 쿠알라룸푸르 센터는 ‘말레이시아 채식협회(Malaysian Vegetarian Society)’가 ‘푸트라 세계무역센터(Putra World Trade Center)’에서 주최한 ‘제1회 채식대회’에 참가했다. 동수들은 전시 부스와 음식 부스를 설치하고, 새로 10개 위성 플랫폼이 추가됐다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와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이 인쇄된 대형 세로 현수막으로 부스를 장식했다. 우리는 32인치 LCD TV를 설치해 스승님의 DVD와 미리 다운 받아 놓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상영하고, 홍보용 책갈피도 열심히 나누어 주었다. 우리 부스에 매료된 다양한 국적의 많은 방문객들이 견본책자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 뉴스잡지를 가져갔다.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씩 앉아서 스승님의 강연을 시청하기도 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우리 부스를 소개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더 많은 견본책자를 간곡히 요청했으며, 웹사이트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보는 법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웠다.



사저 두 명이 채식 요리 시범을 보이고 시식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사람들은 파티가 열린 듯 적극적이고 행복한 반응을 보였다. 나중에 가진 인터뷰에서 그들은 채식 음식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채식주의의 개념에 찬성하고 육식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도 이해했다.

동수들은 이번 채식대회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는 것을 느꼈으며 즐거운 분위기를 통해 큰 힘을 얻었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 대한민국

학생들이 채식에 관한  
교육적인 세미나를 환영하다

부산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부산]**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부산 센터는 부산대학교와 ‘평화가 깃든 밥상’의 초청을 받아 채식에 대한 두 차례의 강연회를 열었다.



12월 4일, 대학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대학교 강연에서는 ‘생명 사랑·채식실천협회’ 회원인 고 사형이 동수들의 협조를 받아 채식 비디오를 상영하고 이 자비로운 식생활에 담긴 여러 가지 논리적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강연했다. 강연 끝 무렵 채식을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참석한 340명의 학생 중 반 이상이 손을 들었다. 강연에 이어 이 대학 출신의 동수들이 채식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후배들과 함께 나누었으며, ‘대안적인 삶’·‘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도 배포했다. 강연이 끝나고 동수들이 정성껏 준비한 채식 도시락을 나누어 주자 학생들은 매우 기뻐했다. 한 학생은 언젠가 채식 식품 사업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평화가 깃든 밥상’ 강연

‘평화가 깃든 밥상’은 가정의 건강한 식생활 운동을 전개하는 소비자 단체 중 하나이다. 12월 12일, 다양한 요리 연구가, 보건의료 계통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한 사저가 진행한 강연을 들었다. 강연 내내 청중들은 동의의 표시로 자주 고개를 끄덕였으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채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강연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가득 채운 즐거운 연주회로 끝을 맺었다. 🌸



## 음식 박람회에서 채식주의를 장려하다

대구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대구]**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동수들은 연례 행사인 ‘제3회 대구 음식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채식주의를 장려했다.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의 하나가 된 이 박람회는 최고의 요리와 요리법을 찾아내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동수들의 부스에 전시된 다채로운 시식용 음식들은 많은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좋아했다. 전통 음식점을 경영하는 한 여성은 전시되어 있는 음식의 조리법을 묻기도 했다. 정기적으로 200인분이 넘는 식사를 준비한다는 한 수녀님은 앞으로 채식 음식을 제공할 생각을 가졌다. 우리 부스를 방문했던 한 스님은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부스를 찾아와서 채식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했다.

채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방문객 중 많은 수가 이미 채식을 하고 있었다. 이 행사를 통해 대구 동수들은 평화의 시대가 밝아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 홍콩

# 교내에 채식 생활 방식을 장려하다

홍콩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홍콩]**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24일, 홍콩 동수들은 홍콩의 유명한 국제학교인 샤틀린 대학(Shatin College)에서 주최한 연말 자선 바자회에 참가했다. 동수들은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채식 간식을 준비해 바자회에서 판매하는 한편 부스에 스승님의 새로 나온 책들을 전시하고 영문판·중문판 견본책자와 ‘대안적인 삶’ 전단,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 2008년도 달력 등을 오가는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형들에게 나눠 주었다. 모든 방문객들이 채식 간식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동물을 사랑하는 고귀한 이



념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태아 때부터 채식을 한 사랑스럽고 예쁜 소녀(왼쪽에서 두 번째)가 동수들을 위해 광고해 주고 맛있는 채식을 맛보라고 학교 친구들을 바자회에 데려오다.



## 포모사

# 생명 존중의 이념을 장려하는 교내 책 전시회

신주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신주]** ‘생명 존중, 동물 사랑’이라는 고귀한 이념을 장려하기 위해 국립 청화(淸華) 대학교 동아리 ‘광음회(光音社)’ 소속 동수들은 신주 지역의 각 대학에서 동물 사랑에 관한 책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동수들은 교내 유기견들을 돌보는 국립자오통(交通) 대학교 동아리 ‘멍멍회’와 공동으로 자오통 대학교 교내 식당 앞에서 소규모 책 전시회 겸 무료 채식 시식회를 열었다. 행사장에서는 스승님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함께 야네즈 드르노브세크 박사의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Thoughts on Life and Consciousness)』도 전시됐으며, 스승님께서 동물들과 따뜻하게 교감하시는 DVD도 상영됐다. 이 밖에 동수들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사탕과 과자, 그리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 달력 카드, 휴대용 티슈, 볼펜 등과 같은 작은 선물도 나누어 주었다.

동수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맛있는 채식을 선보이고 채식이 세계와 중생들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로움을 깨닫게 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했다. 🌸



## 송년의 밤 행사에서 고귀한 메시지를 나누다

장화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장화]**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31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장화 센터 동수들은 장화 시청이 기차역 앞에서 개최한 ‘도약 2008년 장화 시 송년의 밤 및 점등 기도회’에 참가했다. 7시간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서 동수들은 방문객들에게 2천 잔에 가까운 뜨거운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부스를 설치해 스승님의 신간과 각종 출판물을 전시하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계속 방영하는 한편 ‘대안적인 삶’·‘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과 기념품도 나누어 주었다.



한밤중 2008년 새해가 다가오는 시각, 현장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연단의 사회자와 함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등에 불을 붙이고 축복을 빌면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우리는 황금시대 5년에는 모든 중생들이 한 걸음 더 높은 의식 차원으로 나아가고 다 같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신실하게 기도했다. 🌸



## 축복받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

싱가포르 뉴스그룹 종합 (원문 영어)

스승님께서 파리 크리스마스 선행사 기간 동안 전세계 연락인들을 만나신다는 소식을 접한 프랑스 센터 동수들은 즉시 준비에 착수했다. 영하 3도가 될 것이라는 일기예보와 함께 참가 인원이 2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동수들은 센터를 운치 있고 집처럼 푸근한 장소로 멋지게 개조해 사랑하는 스승님과 황금시대 4년의 마지막 날들을 보낼 준비를 갖췄다.

선행사 기간 동안 동수들은 스승님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내고 명상하는 축복을 누렸다. 낮에는 장시간의 명상 일정이 잡혔고 밤에도 잠자는 시간 없이 철야 명상이 계속되었다. 스승님께서 앞으로 개최될 선행사에는 잠잘 장소가 없을 테니 밤새도록 명상한다는 개념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언급하셨다.

### 행복한 마음과 신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라

선행사 기간 동안 스승님은 매일 여러 그룹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대부분 농담을 해주셨는데, 스승님은 우리가 항상 웃고 더욱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은 간혹 가다 카비르의 시를 해석해 주시거나 인간 관계, 사랑, 신에 대한 헌신 등 많은 주제에 대해 동수들과 토론하시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매 순간마다 신을 생각하도록 하셨다.

인간 관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스승님은, 부부는 서로를 더 존중해야 하며 손님을 대하듯 대접하라고 조언하셨다. 스승님은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남편이나 부인이 집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이하고,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을 챙겨 주며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하셨다. 특히 아무 데나 양말 벗어 놓지 않기, 먹고 나서 치우기, 외모를 가꾸고 청결을 유지하기,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 대신 함께 대화를 나누기 등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먹는 것에 관한 대화(스승님은 동수들이 늘 너무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준다고 농담하셨다.)를 하던 중에는, 히 말라야에 계실 때 그곳의 한 가게에서 팔던 맛있고 먹음직한 사모사(samosa-인도식 튀김 만두)와 관련된 ‘유혹’의 경험을 말씀하셨다. 스승님은 하나씩 하나씩 사서 드시다가 결국 다섯 개까지 드셨는데, 다 드신 다음 당신 자신에게 너무 놀라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며칠 동안 음식을 끊고 자신을 훈련시켰다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은 이 얘기를 기회로 우리에게 선지자 모하멧의 말씀을 상기시키셨다. “소유는 욕망으로 이끌고 욕망은 윤회로 이끈다.” 이런 이유로 중국 풍수에서도 부엌은 집안의 한가운데에 만들지 않는다. 안 그러면 모두가 음식에 매달릴 테니 말이다!

선행사 기간 동안 스승님은 반짝거리는 연한 파란색, 빨간색, 금빛이 도는 노란색 긴 옷을 입으셨으며, 매번 참신한 머리 모양과 아름다운 디자인의 옷차림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셨다.

## 아름다운 산타가 세상에 보내는 크리스마스 인사

크리스마스이브에 스승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에 흰색 인조 털이 둘러진 귀여운 빨간 모자를 쓰고 나오셔서 우리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인사하시고 모두에게 기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기원하셨다. 동수들은 스승님께 다양한 문화의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러 드리고 시를 낭송하면서 모두 함께 즐겼다. 스승님은 예전에 천연 채식 와인을 직접 만드신 적이 있다면서 나중에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셨다. 또한 ‘리빙푸드’를 통해 출시하려고 만드신 새로운 소스와 제품에 대해서도 살짝 언질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입맛을 다시며 군침을 흘렸음은 물론이다!

동물에 관해 이야기하실 때는, 많은 동물들이 어떤 인간을 보호하거나 좋은 일을 하려는 고귀한 목적으로 이곳에 온다고 설명하셨다. 그러나 동물은 제한된 방식으로만 자신의 고귀함을 계발시킬 수 있는 반면, 인간에게만 대단한 특권이 주어져 고귀한 생각과 행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 영적 진보를 위한 사랑의 일깨움

전체적으로 스승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명상하도록 격려했다. 스승님은 모두에게 세상을 돕기 위해 애쓰는 노력, 특히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통한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셨다. 스승님은 우리의 지속적인 공헌은 분명 개인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켜 수행이 더욱더 진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사랑과 평화를 위해 신께 계속 기도하고 정부가 어서 빨리 변화하도록 바랄 것을 격려했다. 스승님은 무기를 금지한 필리핀 같은 나라들을 예로 들어 칭찬하시며, 군대를 공익을 위해 사





용할 것을 제안하셨다. 스승님은 에세네파의 ‘칼을 두드려 쟁기날로 만들라’라는 문구를 인용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어 생명을 뺏기보단 식량을 제공하라는 뜻이다.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권하시고 상기시키신 점은 생활을 단순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한집에 같이 살며 책임을 분담하고, 빚을 청산하고, 잠은 줄이되 명상은 많이 하며, 먹는 걸 줄이고 간단히 먹음으로써 명상을 위한 에너지를 아끼도록 하셨다. 또한 매 순간마다 오불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예를 들면 대화를 하다가도 한 마디 한 마디 끝날 때마다 오불을 기억하라고 하셨다.


선행사 마지막 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이 행사에서 축복과 활력을 얻은 채 아쉬움을 안고 떠나야 했다. 우리는 내면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우리 자신을 단련시킬 것을 결심했다. 그 리해 더욱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전세계 각 센터가 신을 옹호해 이 지구를 구하도록 도울 것이다.

## 사랑하는 스승님과 함께 보낸 제야

런던 뉴스그룹 (원문 영어)

**유** 럽 동수들은 운 좋게도 파리 센터에서 황금시대 4년(2007년) 아름다운 제야에 스승님을 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날 밤은 많은 농담과 웃음이 넘쳐났다. 카운트다운을 할 때는 모두가 무알콜 와인을 들고 새해를 맞이했으며 스승님도 우리와 함께 황금시대 5년의 시작을 경축하셨다. 스승님은 초콜릿 사탕을 잔뜩 나눠 주시고 모두에게 작고 빨간 봉투를 주셨다. 또한 루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주시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한편 노아의 방주와 그의 오만한 아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자 우리와 함께 명상을 시작하신 스승님은 우리에게 새벽까지 명상하도록 하셨다. 최고의 스승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현장에 있던 모든 동수와 전 행성을 위한 진정한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저 기쁘기만 했다. 



# 북극 빙하 해빙을

## 저지할

## 행동을 취하자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우리는 전환점을 넘어섰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NASA 수석 기후 연구원 제임스 헨슨(James Hansen) 박사

**만**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가 우리 행성의 모든 생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목 축업,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공장·발전소·자동차·기타 교통수단들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갇가지 가스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한다. 이런 가스들은 태양열을 가두어 지구와 대기층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 효과’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지구에 미치고 있는 즉각적인 영향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2007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단 6일 만에 69,000평방마일에 해당하는 북극 빙하가 녹아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는 미국 플로리다 주만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이다. 최근 미항공우주국(NASA)은 2007년 여름에만 5,520억 톤의 얼음이 녹아 버린 그린란드 빙원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NASA의 기후 학자 제이즈왈리(Jay Zwally)는 “이런 추세로 가면 2012년 여름이 끝날 무렵엔 북극해의 빙하가 거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임 부통령 앨 고어(Al Gore)와 공동으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주목을 호소하고 있다. 2008년 1월 15일 화요일, IPCC 의장 라젠드라 K. 파차우리(Rajendra K. Pachauri)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의 긴급성을 알리면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는 방도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하고도 큰 소리로 호소했다.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소비를 줄이십시오.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해수면 상승과 거주지 감소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는 것이 기후와 날씨 체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극지방의 빙하가 태양열의 80%를 우주로 반사해 돌려보내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거울을 치워 버리면 태양열이 곧바로 대양에 흡수되어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빙하가 녹으면 지구와 바다가 더욱 따뜻해진다.

‘북극기후영향평가(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로버트 코렐(Robert Correll) 단장은 “빙하가 없다면 바다의 온도가 계속 올라갈 것이며, 지구 온난화 과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사실 워싱턴 대학교 마이클 스틸(Michael Steele)의 연구에 따르면 북극해의 여름 해수면 온도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치보다 화씨 8도가 높았다고 한다.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수장을 역임했던 지질 학자 존 애치슨(John Atcheson)은, 극지방의 영구 빙하층이 녹고 그에 따라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4천억 톤의 메탄가스가 해저 밑의 얼음 구조 속에 갇혀 있는데, 바닷물의 온도가 몇 도만 상승하면 가스가 대기로 방출돼 큰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영향력이 20배나 강하기 때문에, 갇혀 있는 이 대량의 메탄가스가 대기로 방출될 경우 지구 온난화는 제어 불능의 상태가 되어 우리 행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해양 속의 독가스

지구 온난화가 바닷물의 온도에 끼친 영향으로 인해 해양에 ‘죽음의 해역(dead zone)’이 생겨났다. 이는 산소 결핍과 독성 황화수소( $H_2S$ )의 방출로 생겨난, 생명체가 없는 광범위한 수역(水域)을 말한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200여 곳이 넘는 죽음의 해역이 존재한다. 미국 오리건 해안에서 멀지 않은 태평양의 한 죽음의 해역은 작년에 비해 4배가량 커졌다. 오리건 주립대학 해양생물학과 제인 루브첸코(Jane Lubchenco) 교수는 이 구역의 산소가 거의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밝혔다. 산소가 사라지면 새로운 박테리아가 그 자리를 차지해 황화수소 가스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해양 생물과 육지 생물에 치명적이다. 바닷물의 산소 수





치를 떨어뜨리는 두 가지 주된 요인 모두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다. 첫째는, 물이 따뜻해지면서 산소 흡수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둘째는 해류와 날씨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구역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장차 지구상의 해양에 일어날 변화의 전조라고 말한다.

## 우리는 되돌릴 수 있다!

좋은 소식은, 아직은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늦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자 NASA 수석 기후 연구원인 제임스 헨슨 박사는 최근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정부와 단체들이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도 깊은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국제 회의에는 전세계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함께 모여 지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헨슨 박사가 종종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듯이, 해결책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걸 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며, 안 쓸 때는 전기 코드를 뽑아 두고, 물건은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이다. 이런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아름다운 지구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IPCC 의장인 파차우리 박사가 강조한 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확실히 보다 ‘생태 친화적’인 채식, 또는 비건(유제품, 계란 등 일체의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음)을 받아들이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노력해 2008년을 우리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물체들의 삶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해로 만들자. 🌱

참조:

<http://afp.google.com/article/ALeqM5ilVBkZpOUA9Hz3Xc2u-61mDlrw0Q>

<http://www.commondreams.org/views04/1215-24.htm>

<http://www.canada.com/topics/news/national/story.html?id=3ef937b0-01db-4b32-a7eb-e1256e5b5624&k=3152>

<http://www.ihf.com/articles/2008/01/07/healthscience/ice.php>

<http://abcnews.go.com/Technology/wireStory?id=3991705>

<http://abcnews.go.com/Technology/GlobalWarming/story?id=3582433&page=1>

[http://www.thepeoplesvoice.org/cgi-bin/blogs/voices.php/2006/08/12/dead\\_zone\\_startles\\_scientists\\_graveyard](http://www.thepeoplesvoice.org/cgi-bin/blogs/voices.php/2006/08/12/dead_zone_startles_scientists_graveyard)

[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m1200/is\\_22\\_167/ai\\_n14791407](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m1200/is_22_167/ai_n14791407)

[http://www.livescience.com/environment/ap\\_060727\\_dead\\_zone.html](http://www.livescience.com/environment/ap_060727_dead_zone.html)

# SOS



## 채식은

## 지구 온난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소비를 줄이십시오.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IPCC) 의장 라젠드라 K. 파차우리 박사/ 2008월 1월 15일 파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수없이 많다. 이를테면 화석연료 사용 줄이기, 태양열·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 사용하기, 일상용품 줄이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기,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나 대체 에너지 자동차 타기, 절전형 전자제품 사용하기 등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채식은 하는 것이다!

1월 15일,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IPCC 의장 파차우리 박사(Dr. Pachauri)는 인류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기후변화를 멈출 방법은 육식을 안 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2006년에 발표된 환경과 축산업에 관한 유엔 보고서는 “지방부터 전 지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도에서 봤을 때 축산업이 가장 심각한 환경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 두세 가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 Go Veggie!



약 20%의 이산화탄소가 축산업에서 방출되는데, 이는 전세계 모든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총 이산화탄소 양보다 많은 것이다!

기업화된 축산 농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깜짝 놀랄 만한' 주요 원인이다. 음식을 위한 동물 사육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자 메탄가스와 이산화질소를 배출하는 최대 요인이다.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9%,

이산화질소의 65%, 메탄의 37%의 원인은 축산업에 있다. 메탄(23배)과 이산화질소(296배)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다. 또한 인류가 만들어 내는 암모니아의 64%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데, 암모니아는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축산 농업은 또한 토양과 물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최대의 원흉이다. 현재 축산업은 지구 지표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훨씬 많은 토지와 수자원이 가축 사료를 재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 수석 저자인 스타인펠트(Steinfeld) 씨는 『축산업의 긴 그림자-환경 문제와 대응책』에서 "축산은 삼림 벌목의 주원인이다. .... 아마존 원시림의 70%가량이 방목지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축산 농업은 토지를 파괴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목초지의 약 20%가 과도한 방목과 밀집 사육, 침식 등으로 토양의 질이 떨어졌다. 또한 엄청난 수자원을 소모하고 오염시키는 데도 큰 몫을 한다. 매년 미국에서만 수조 갤런의 관개용수가 가축 사료를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는 미국 담수 자원의 약 85%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축은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양의 생물 폐기물을 만들어 낸다.

## 미국 축산 농업에서 식품 1kg을 생산하는 데 드는 물 소모량

고기 1kg	물 소모량 (리터)
쇠고기	1,000,000
닭고기	3,500
콩	2,000
쌀	1,912
밀	900
감자	500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 외에도 축산 농업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낭비하는 산업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산출해 낼 수 있다. 가축을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또한 1kg의 고기를 생산할 때 36.4kg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계산에 의하면 단백질 1칼로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 콩은 화석연료가 단 2칼로리, 옥수수과 밀은 3칼로리가 드는 데 반해 쇠고기 단백질에는 석유 에너지



지가 54칼로리나 사용된다!

이것은 햄버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화석연료 에너지가 채식햄버거의 27배나 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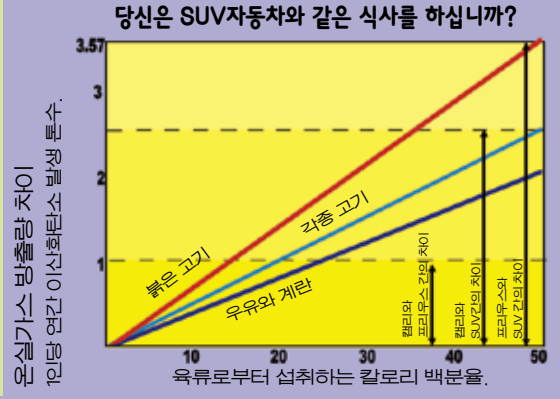
에너지 비용·물 소비량·토지 사용·환경 오염·생태계 파괴 등 각 방면을 종합해 볼 때 1인분의 육식에 들어가는 자원으로 15인분의 채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작년, 시카고 대학 지구물리학과 연구원인 기돈 이셜(Gidon Eshel)과 파멜라 마틴(Pamela Martin) 또한 식

량 생산과 환경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 냈다. 그들은 붉은 고기, 생선, 가금류 고기, 우유 및 계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해 비건 식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수치와 비교한 결과,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할 때, 비건 식단에 비해 각종 육류 위주의 식단이 초래하는 온실가스 부담 수치. 비교를 위해서 각종 차량들 간의 온실가스 방출량의 차이도 함께 제시한다.

붉은 고기, 가금류 고기, 생선을 포함한 육류 식품을 예로 들 때, 육류로부터 섭취하는 칼로리가 47%에 달할 경우, 서버번(Suburban) SUV 자동차와 캠리 자동차 간의 방출량 차이와 맞먹는다.



미국인의 표준 식단을 채식으로 대체할 경우 1인당 매년 1.5톤의 온실가스 방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와 비교해서, 도요타 캠리(Camly)와 같은 일반 승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도요타 프리우스(Prius)로 바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약 1톤가량 줄일 수 있다.

선택은 바로 주방 안에 있다. 설령 사람들이 축산 농업의 윤리적 잔인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기후변화를 막아야 하는 시급성과 그 대책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채식주의자나 환경주의자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 기구의 의장인 파차우리 박사는 육식이 우리 지구에 해로우며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육식을 멈춰야 한다고 세상에 공표했다. 그렇지만 선택은 사람들에게 달렸다. 더 시원하고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니 간단하게 우리 주방에서부터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즉 채식을 선택해 기후변화를 되돌리도록 도와야 한다. 🌱

참고:

[http://www.huffingtonpost.com/kathy-freston/vegetarian-is-the-new-pri\\_b\\_39014.html](http://www.huffingtonpost.com/kathy-freston/vegetarian-is-the-new-pri_b_39014.html)

<http://www.goveg.com/environment-globalwarming.asp>

<http://www.satyamag.com/feb07/eshel.html>

<http://atp.google.com/article/ALeqM5ilVBkZpOUA9Hz3Xc2u-61mDlrw0Q>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20772&Cr=global&Cr1=warming>

<http://www.news.cornell.edu/releases/Aug97/livestock.hrs.html>

월 터틀 박사(Dr. Will Turtle): 『세계 평화의 식생활(The World Peace Diet)』 11장과 11장의 참고 자료

# Go Veggie!

# 축산업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을 보여 주는 네덜란드 영화

네덜란드 뉴스그룹 (원문 영어)

‘4 콜라스 G. 피어슨 재단’(Nicolaas G. Pierson Foundation)’이라고도 알려진 ‘동물을 위한 정당’ 과학국이 올봄에 ‘육식의 진실(Meat The Truth)’이라는 기후변화 관련 다큐멘터리를 출시한다. 재단에서는 이 영화가 앨 고어 미국 전임 부통령의 ‘불편한 진실’의 후편으로 여겨지길 바란다. ‘불편한 진실’은 지구 온난화로 야기된 문제를 설명하면서도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인 가축 사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육식의 진실’은 육류와 유제품 생산하기 위한 축산업이 전세계 모든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보다 지구 온난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명확히 보여 준다. 이 영화에는 유명한 네덜란드 배우, 작가, 정치가들이 출연하여 채식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관중들과 함께 나눈다. 또한 축산업이 기후와 환경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과학적 증거도 제시된다.

## 영화에서 언급된 몇 가지 사실.

- 소 한 마리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 한 대가 7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때 배출되는 양과 같다.
- 허머(Hummer) SUV 자동차를 타는 채식주의자 자전거를 타는 육식인보다 친환경적이다.
- 네덜란드 국민이 일주일에 하루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 감소되는 이산화탄소량은 네덜란드 정부가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목표한 연간 배출 감소량과 같다.
- 남미에서는 소 먹이용 콩 재배를 위해 약 4억 헥타르의 땅이 사용되지만, 이를 인간 식량으로 사용한다면 2,500만 헥타르만으로 전세계 인구를 먹일 수 있다.



암스테르담 ‘브리에 대학교(Vrije University)’ 과학자들은 이런 정보를 위해 영화 제작자에게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했다. 영화 끝부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출시될 이 다큐멘터리에 벌써부터 전세계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육식의 진실’이 큰 성공을 거두길 빌며 이 작품이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에 사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채식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공헌을 하길 바란다.

참고: [www.partijvoordedieren.nl](http://www.partijvoordedieren.nl) (네덜란드어)





## 빛나는 세계 영웅상

**세** 계 곳곳에서 인정 넘치는 행동과 신의 성스러운 사랑의 현시를 볼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일과 자비로운 행동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세상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더해 준다. 이러한 덕행을 표창해 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범을 따르도록 격려하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비롯한 일련의 상을 제정하셨다. 귀감이 되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정부·단체, 자비롭고 용감한 동물 친구들에게 수여되는 이 상은 모든 존재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그들의 훌륭한 이상에 대한 찬탄과 감사를 나타낸다. 하트 평점은 인류에게 모든 존재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도록 상기시키는 신의 사랑을 상징한다.

## 소년 영웅의 기지가 사람을 구하다



시드니 뉴스그룹 (원문 영어)



부모님과 함께한 줄리언 쇼(가운데).

**황** 금시대 4년(2007년) 12월 11일 화요일, 호주 시드니 국제협회 회원들은 리사로 고등학교(Lisarow High School)를 찾아가 이 학교 재학생인 줄리언 쇼(Julian Shaw)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해 기차역에서 낚선 사람의 생명을 구한 용감하고 사심 없는 행동을 표창했다. 이 상은 전교생과 뉴사우스웨일스 교육부 지역 부국장인 마리 로버츠(Maree Roberts) 씨가 참석한 자리에서 수여되었다.

10월 19일 방과 후, 줄리언은 연착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철로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그는 그 사람을 돕고자 즉시 철로로 뛰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

기차가 역으로 진입하고 있어서 두 사람은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졌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줄리언은 TV 프로그램인 '호기심 해결사(Mythbusters)'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남자를 플랫폼 아래의 선로 가장자리로 끌고 가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일어났을지도 모를 비극을 막게 되었다.

줄리언이 구한 오드와이어(O'Dwyer) 씨는 병 때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다. 그날 마침 기차가 연착하는 바람에 줄리언은 기적적으로 오되어 씨를 도울 수 있었다. 게다가 오드와이어 씨가 키 187cm, 몸무게 110kg이었던 것에 비해 약 180cm의 키에 몸무게 70kg이었던 줄리언이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빛나는 세계 영웅상

시상식에서 줄리앤은 스승님이 보내신 ‘빛나는 세계 영웅상’ 상패와 감사 편지, 미화 1,000달러 수표, 그리고 스승님의 출판물과 초콜릿을 받았다. 줄리앤은 겸손하게 이 선물들을 받으면서 스승님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했다.

우리 협회 회원들은 도서관 기증용으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세 권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두 권도 제프 브로매지(Jeff Bromage) 교장에게 전달했다. 이 선물을 매우 아주 감사히 받은 브로매지 씨는 젊은이의 선행을 표창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의 훌륭한 모범을 따르게 해주신 스승님과 우리 대표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는 청소년들에 관한 긍정적인 소식이 좀더 많이 보도되어야 한다면서 ‘수퍼림 마스터 텔레비전’ 같은 고양된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동수들에게 나중에 다시 방문해 학교 학생들의 선행에 관해 보도해 달라고 청했다.

시상식에는 인기 있는 아침 TV 토크쇼 프로그램인 ‘여명(Sunrise)’을 비롯한 몇몇 매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시상식 다음날, 줄리앤은 ‘여명’과 인터뷰를 하

면서 스승님께 받은 상패와 편지를 자랑스레 보여 주었다.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상한 줄리앤 쇼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의 무아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일깨움을 준다. 🌸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다음 URL 주소를 참고하세요. ‘이달의 수상자’를 비롯해 지난 수년간의 시상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gv/>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아낌없는 지원 ♥♥♥♥♥♥♥♥

벨기에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 금시대 4년(2007년) 12월 12일, 벨기에 동수들은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태평양지구 대표단(European Commission's Delegation for the Pacific)' 단장 로베르토 리돌피(Roberto Ridolfi) 박사를 만나는 영광을 갖고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해 그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함으로써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훌륭한 인도주의적 업적을 표창했다.

유럽연합은 13개 태평양 연안 국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2억 7천 6백만 유로를 기부했다. 이들 국가는 지구 총 면적의 1/3을 차지한다. 유럽연합은 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도상국과 부를 나눔으로써 아낌없이 돕는 고귀한 모범을 보여 줌과 동시에 우리 행성 전체를 이롭게 했다.

리돌피 박사는 남태평양 지역에 환경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운 유럽연합의 성과에 대해 열렬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런 일에 참가하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며 자기 비서 두 명을 사무실로 불러 보여 주기까지 했다. 그는 이 영광을 동료들과 함께 나눌 것이며 사무실에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상패를 놓아두겠다고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스승님의 예술 창작집, DVD, CD 등의 선물도 같이 증정했는데, 리돌피 박사는 이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리돌피 박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자신의 소망을 표현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

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할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합시다.”

이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 리돌피 박사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든 선진국들이 이에 영감을 얻어 수혜국에 이로운을 주고 우리의 아름다운 세상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뜻 깊은 방식으로 원조를 제공하길 기원한다. 🌸



로베르토 리돌피 박사가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집무실에서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받다.



상패와 선물을 들고 있는 리돌피 박사와 그의 두 비서.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 다이애나 칼라트바리 - 희망과 자비의 사자 ♥♥♥♥♥♥♥♥


영국 익스위치 뉴스그룹 (원문 영어)

**다**이애나 칼라트바리(Diana Khalatbari)는 끝없는 활동력과 결단력, 열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비를 가져다주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비범한 여성이다.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그녀 또한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수상이 되었다. 정말 그녀에게 꼭 맞는 상이었다.

1998년, 칼라트바리 여사는 딸 포프리를 기리고 아울러 전세계 어린이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포프리 칼라트바리 자선재단(Popli Khalatbari Charitable Foundation, PKCF)’을 설립했다. 재단의 모토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이다.

PKCF를 통해 다이애나는 전세계의 각종 단체의 많은 프로젝트에 기금을 제공하고 추진했다. 이란에서는, 2003년 지진 이후 재건축된 밤(Bam)의 하킴 파라비 직업학교(Hakim Farabi Vocational School)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이 PKCF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PKCF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쉬라이너 어린이 병원(Shriners’ Hospital for Children)’, 잠비아의 ‘의료 프로젝트(Heal Project)’, 난민 아동에게 스포츠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엔 기구 ‘나인밀리언(ninemillion.org)’ 등 많은 단체에 지속적인 기부를 하고 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12월, 칭하이 무상사는 PKCF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미화 만 달러를 기부하셨다. 다이애나는 감사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당신의 기부는 우리 재단이 올해의 달성 목표에 상당한 영향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스잡지 178호 참조)

다이애나는 작년 9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로부터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받았다. 그녀는 스승님께서 관대한 인정에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를 표하며, 자신은 스승님을 이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가져오기 위해 일생을 바치신 참으로 고귀한 분으로 존경한다고 말했다. 



참고: <http://www.pkcf.com/>





# 빛나는 세계 자비상



## 생명의 선물 나누기

미국 일리노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협회 대표가 스틸 여사에게 상을 수여하다.

**황** 금시대 4년(2007년) 12월 20일, 일리노이 센터 동수들은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해 미주리 주 퍼거슨(Ferguson) 시의 콜린 스틸(Coleen Steele) 여사에게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했다. 스틸 여사는 그리피스 초등학교(Griffith Elementary School) 미술 교사로, 이 학교 학생이었던 사만사 슈넛고엑(Samantha Schnettgoecke)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용기와 사랑으로 자신의 한 쪽 신장을 기증했다. 사만사는 아동으로서는 희귀한 신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스틸 여사의 신장 조직과 128%(통상적인 일치 비율

은 85~90%) 일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스틸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이것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상식은 스틸 여사의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은 미술 선생님이 스승님으로부터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스틸 여사는 상패 외에 미화 천 달러 수표와 스승님의 책과 채식 케이크, 초콜릿 등의 선물도 함께 받았다.

시상식이 있은 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널리 방송되는 TV 채널 중의 하나인 ‘폭스 뉴스(Fox News)’에서 스틸 여사와 사만사를 인터뷰했다. 스틸 여사는 처음에 그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믿기 어려웠으나 스승님의 편지를 받고 시상단이 도착하자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천 달러 수표가 때마침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암으로 위중한데도 돈이 없어 캘리포니아로 아버지를 뵈러 가지 못하고 있



스승님의 책을 읽고 있는 스틸 여사와 사만사, 그리고 사만사의 엄마.

# 빛나는 세계 자비상



있기 때문이다. 스승님이 주신 수표는 그녀의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았다!

‘폭스 뉴스’ 기자들은 이전까지 칭하이 무상사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었지만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촬영 팀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수들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는 스승님의 활동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시상식이 있는 지 며칠 후, 스승님은 스틸 여사의 아버지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화 5백 달러를 보내셨다. 스틸 여사네 가족에게는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며, 이는 또한 크리스마스가 사랑의 선물을 보내는 철임을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시상식을 보시려면, 다음 주소를 방문하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NEWS464\\_467.php](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NEWS464_467.php)

## 오피르 드로리-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는 전사 ♥♥♥♥♥

영국 서리 뉴스그룹 (원문 영어)



서른 살의 이스라엘인 오피르 드로리(Ofir Drori) 씨는 위협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그와 이스라엘의 동료 보호론자들은 ‘최후의 대형 유인원 기구(The Last Great Ape Organization, LAGA)’라는 단체를 설립해, 카메룬의 풍요로운 적도 우림에서 위협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고자 돕고 있다.

LAGA는 아프리카 대형 유인원의 멸종을 막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결과로 탄생되었다. 이 단체는 현장 행동을 위주로 하는 단체로, 현지의 법 시행 기관이 실제로 법령을 집행하도록 촉구해 이 위기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일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 빛나는 세계 자비상



오피르 드로리의 어머니인 캐시 드로리 여사(오른쪽)가 아들을 대신해 상패를 받다.

중의 하나이며, 더 나아가 2007년 ‘클라크 알 바빈 야생생물법 시행상(Clark R. Bavin Wildlife Law Enforcement Awards)’에 LAGA를 후보로 지명했다.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칭하이 무상사는 감사 편지를 통해 드로리 씨에게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하면서 동물을 구조하고 야생 동물 보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을 표창했다. 칭하이 무상사의 편지를 받은 드로리 씨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제 일을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을 저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 주고 일을 계속 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 밖에 칭하이 무상사는 드로리 씨와 LAGA에 미화 5천 달러의 상금을 보내 그들의 자비로운 활동을 지원하였다. 드로리 씨는 특히 그 자금이 때맞춰 도착함으로써 카메룬의 몇몇 긴급한 상황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기뻐하고 감격했다.

영국의 협회 회원들은 LAGA에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상패를 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다. 드로리 씨는 바쁜 일정으로 수상식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어머니에게 대신 상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금시대 4년 10월 29일, 협회 대표단은 캐시 드로리(Kathy Drori) 여사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오피르 씨에 따르면 자기 어머니는 영적인 분이며 그에게 이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신다고 준다고 한다.

드로리 여사는 아들을 대신해서 이 아름다운 상을 받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나머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 아들의 노력과 고생을 인정해 주신 칭하이 무상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물의 생명을 구하려는 드로리 씨와 LAGA의 노고에 천국의 모든 지원이 함께하길 있길 기원한다. 🌸



참조:

<http://www.laga-enforcement.org/Home/tabid/36/Default.aspx>  
<http://news.bbc.co.uk/2/hi/africa/6702113.stm>



# 빛나는 세계 자비상



## 오피르 드로리 씨의 감사 편지

칭하이 무상사께

저를 ‘빛나는 세계 자비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일을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을 저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가끔씩 찾아오는 격려에 힘입어 부정적인 기운을 극복하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보내 주는 좋은 에너지, 그들의 굳건한 정신력의 표현, 혹은 미소들이 저에게 계속해 나갈 힘을 주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저는 이런 국제 사회가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운동가의 힘은 같은 이상과 가치관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 상을 받은 것이 저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귀하의 대표로부터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장 오피르 드로리 올림



스승님의 농담

## 공통된 느낌

칭하이 무상사/ 2007. 8. 23.

프랑스 파리 선삼 (원문 영어)

**두** 남녀가 소개로 만났어요. 그들은 곧 지루해졌지요. 정말 지루한 만남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상대방 남자에게 친구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밖에 나가 한참 동안 통화를 했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그는 여자에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 봐야겠어요.” 이해심이 깊은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그럼요, 그래야지요! 당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하니 정말 잘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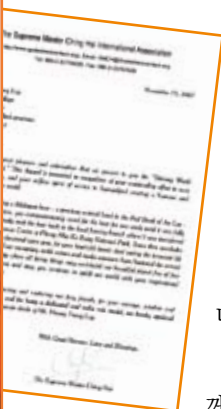




# 빛나는 세계 자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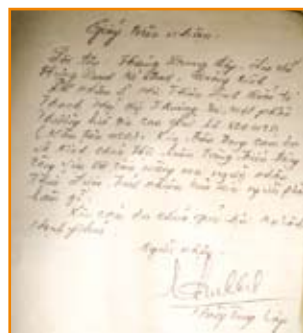
## 자애로운 남자가 의지할 데 없는 꿈을 구하다 ♥♥♥♥♥♥

홍콩 뉴스그룹 (원문 어울락어)



**황** 금시대 4년(2007년) 11월 22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는 어울락 중부 팡찌(Quang Tri) 성 호앙 쯙 랍(Hoang Trung Lap) 씨를 방문해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했다. 매우 자비로운 랍 씨는 사냥꾼들에게 잡혀 기력이 다 빠진 곰 한 마리를 구출했다. 그는 곰을 집으로 데려와 회복될 때까지 돌봐 준 다음 곰을 동물 보호소에 보내 다시 자유를 찾게 해주었다.

국제협회 회원은 상패와 함께 칭하이 무상사가 보내신 미



스승님이 주신 미화 5백 달러의 선물에 대한 호앙 쯙 랍 씨의 감사 편지.

화 5백 달러를 랍 씨에게 증정했다. 랍 씨는 스승님의 사랑과 우리 협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이번 수상을 통해서 제가 유익하고 좋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제 능력이 되는 한 이 일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무력한 동물들을 구조하고자 자비로운 마음과 숭고한 이상을 보여 준 랍 씨에게 감사드리며, 빛나는 자비의 모범이 이 세상에 보다 많이 나타나 모든 존재들이 평화로운 시절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한다. 🌸

## ♥♥♥♥♥♥♥♥ 양웨이링 회장의 바람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 금시대 4년(2007년) 12월 11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들은 스승님을 대신해 타이베이 시 ‘지풍 초문교봉사협회(知風草文教服務協會)’ 창립자인 양웨이링(楊蔚齡) 회장에게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

# 빛나는 세계 자비상



함으로써, 지난 수년 동안 캄보디아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운 자비로운 노고를 표창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90호의 '난민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캄보디아의 딸, 양웨이링'을 참고하세요.) 양 회장은 상패와 스승님의 표창장 외에도 스승님의 저서와 DVD·CD, SM 천의, 허브차 세트 등의 선물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을 불교 신자라고 밝히며 '지풍초문교봉사협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경비가 부족했지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일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불보살이 도우는 법이라서 그 결과 온갖 도움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 협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다만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으면 한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 '빛나는 세계 자비상'이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답례로 협회 대표들에게 자신의 책인 『야자수 평원에서 - 국경을 초월한 타이완 지풍초의 사랑과 관심』을 선물했다.



'빛나는 세계 자비상'과 표창장을 받은 양웨이링 양.

우리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사심 없이 구조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이 자비로운 여성의 눈에서 신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양웨이링과 같은 세상의 모든 진실한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신의 무한하고 성스런 사랑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들의 자애로운 행동이 등대가 되어 세상을 비추고 사람들을 인도하길 기원한다. 🌸



양웨이링 양(오른쪽)이 스승님의 출판물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지풍초문교봉사협회' 사무실.





# 빛나는 세계 자비상

## 만물 평등의 이상을 실천하는 고귀한 본보기 ♥♥♥♥♥♥♥♥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집** 없는 동물들을 구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 온 자비의 여성, 뒤즈롱(多姿融) 양은 지난 12년간 수만 마리의 집 없는 동물들을 구했다. 그녀와 가족들은 이 무력한 동물 친구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많은 저축과 재산, 시간을 바쳐야 했고 심지어 악의에 찬 공격까지 견뎌야 했지만 줄곧 어떠한 후회나 원망도 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91호를 참고하세요.) 뒤즈롱 양의 이 고귀한 모범을 표창하기 위해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9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상하이 교외에 있는 그녀의 집을 방문해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해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하고 미화 5천 달러의 상금과 스승님의 서적·DVD 등을 전달했다.



뒤즈롱(왼쪽에서 두 번째) 양과 그녀의 가족이 상을 받고 기쁨과 격려를 나누다.

뒤 양과 그녀의 가족들은 정중하고 겸손하게 상을 받았고, 스승님에 대한 신실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뒤즈롱 양은 이 상을 주신 것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칭하이 스승님이 바라시는 것과 같이 언젠가는 이 행성에 만물 평등의 이상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가족들 모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 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호소하고, 정부 당국이 동물 보호법과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도덕 규범을 신속히 제정하기를 희망했다. 스승님의 격려는 그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동물의 생존과 평등한 권리를 위해 노력해 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빛나는 세계 자비상



동물에 대한 뒤 양 가족의 사심 없는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이 이들의 모범을 따라 모든 동물들과 인류가 이 황금시대의 아름다운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

## 뒤즈롱 양의 감사 편지

존경하는 칭하이 무상사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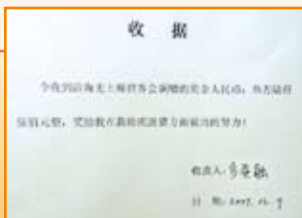
저희에게 이 상과 미화 5천 달러의 상금을 수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는 숭고한 힘인 정신과 생명의 선물입니다.

스승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성스러운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 없는 동물들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 자비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힘없는 동물 친구들을 구하고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존중과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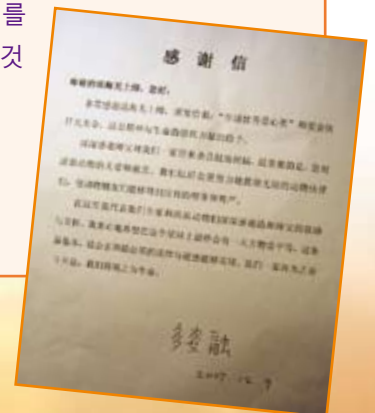
저는 여기에서 저희 가족과 집 없는 동물 친구들을 대표해,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칭하이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우리 행성에 만물 평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공정하며 가장 필수적인 법률과 도덕이 실현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모든 가족은 이 목적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며, 이를 우리 삶의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2007년 12월 9일

뒤즈롱 올림



스승님이 주신 미화 5천 달러에 대한 뒤즈롱 양의 영수증.





# 빛나는 세계 자비상

## 동물을 보호하는 사랑의 본보기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포** 모사 사람들이 동물 보호에 점점 더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들이 결성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떠돌이 동물들을 돕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관련 기사는 192호 뉴스잡지를 참고하세요.) 이들의 고귀한 노력을 표창하기 위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들은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스승님을 대신해 이 인정 많은 사람들에게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전달했다. 영광스런 수상자는 허우상청(侯祥城)·린메이링(林致玲) 부부와 리허촨(李和川) 씨, 황추구이(黃秋桂) 씨이다.



## 자동차를 집 삼아 밤낮으로 떠돌이 동물들을 돌보다



린메이링(오른쪽) 여사와 자원 봉사자 유슈팅 양이 상장을 받다.

**타** 이중 현 샤루(沙鹿) 진(鎮)에 사는 허우상청 씨와 그의 아내 린메이링 여사는 20년째 집 없는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2년 전에 ‘대만 동물보호협진회’를 설립해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 이 힘없는 이 동물 친구들을 구조하고 있다. 얼마 어마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들은 아낌없이 재산을 팔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 작은 동물들이 바로 친자식 같았기 때문이다. 엄청난 노력과 재

력이 투입되었지만 떠돌이 개들의 문

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래서 허우 씨의 아내는 관련 정부 기관과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절절히 호소했다. “사랑으로 개에게 집을 주세요. 죽이는 대신 중성화 수술을 해주세요. 애완동물을 사는 대신 입양하세요.”

‘빛나는 세계 자비상’ 시상식은 ‘대만동물보호협진회’가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마련하는 ‘사랑의 입양식’ 장소에서 거행되었다. 협회 대표들은 아름다운 상패 외에도 스승님이 기부하신 미화 만 달러를 그들 부부에게 전달했다. 허우 씨는 보육장에 있는 개들을 돌보느라고 그 자리에 참석할




린메이링 여사가 스승님의 기부금 만 달러를 받다. 오른쪽은 영수증.



# 빛나는 세계 자비상



손님들을 열렬히게 환영하는 보육장의 개들.

수 없었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인 유슈팅(游舒婷) 양에게 자기 대신 상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린 여사는 감격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개들을 대신해 칭하이 무상사님의 크나큰 사랑과 시기적절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국제협회 대표에게 전화해서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거듭 감사하다는 말밖엔 드릴 수 없다며 칭하이 무상사께 자신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 기업 관리자의 전문 경영 기법으로 거리의 개들을 보호하다



**자**이 현에서 기계 공장을 경영하는 리허촨 씨는 떠돌이 개들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아낌없이 천만 NT(약 3억 5천만 원)를 들여서 개 전용 보호 시설을 짓고 개들을 돌볼 전문가를 고용했다. 그는 또한 자기 시설에 수용되지 못하는 자이 시 주변의 집 없는 많은 개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고용해 몇몇의 도로의 특정 지점을 선정해 하루에 두 차례씩 사료를 놓아두게 했다. 또 고용인에게 일과표를 작성하게 해 매일 검토하기를 1년 365일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한편 리 씨는 집 없는 개들이 제대로 적절한 보살핌을 받

을 수 있도록 하고자 기업가의 전문 경영 기법을 응용해 체계적인 보육 과정을 구축하고 모든 개에 대해 ‘개별 기록부’를 작성했다.

시상식은 ‘자이 시 동물보호협회’ 판루(番路) 개 보호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를 취재한, 『자유시보』의 왕위춘(王錫淳) 기자는 12월 5일 자이판 신문에 리 씨의 ‘빛나는 세계 자비상’ 수상 소식을 보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 운동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협회 대표들은 상장과 상패 외에도 스승님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뉴스잡지, DVD, 음악 CD, 채식 개 사료 등을 전달했다.



수상자 리허촨(왼쪽에서 세 번째) 씨와 가족들.

상을 받은 뒤 리 씨는 스승님의 인정과 격려에 감사를 표하며, 아주 영광스럽고 기쁘고 흐뭇하다고 말했다.



# 빛나는 세계 자비상



『자유시보』에 실린 리허찬 씨의 '빛나는 세계 자비상' 수상 기사.

다. 그는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자비로운 사람들이 동참해 인간애의 가장 높은 경지까지 발휘하길 희망했다. 또한 그는 모든 떠돌이 개들이 집을 찾아 적절한 보살핌을 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 씨는 관계 당국에 동물 호적제와 같은 동물 입양·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애원동물을 돌보는 정확한 관념과 방법을 가르칠 때 비로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호소에 있는 개들 대부분은 이 씨가 데리고 왔는데 이 씨를 보면 아주 반가워한다.



## 헌신적인 마음 ♥♥♥♥♥♥♥♥

**타** 이난 현 신잉(新營) 시에 사는 67세의 황추구이 할머니는 20년 동안 백 마리가 넘는 집 없는 개들을 입양해 사랑으로 보살폈다.

국제협회 대표단은 스승님을 대신해 황추구이 씨에게 경의를 표하고, 상패와 스승님의 신간, DVD, 과일 바구니, 채식 개 사료 등을 전달하면서 아름다운 동물 친구들에게 베푼 그녀의 무아의 봉사를 표창했다. 황 할머니는 “개들은 인간의 가장 충성스럽고 이해심 많은 친구입니다. 저는 개들을 자식처럼 대하며 온종일 함께 지냅니다. 개들을 돌보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들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보답으로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황 할머니의 자비롭고 의로운 행동은, 한 사람의 힘이 작을지 몰라도 마음만 있으면 중생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나는 모범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동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황추구이 할머니(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



# 빛나는 세계 영웅상



## 데코-용감한 수호천사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5년(2008년) 1월 6일, 런던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들은 영국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위털(Wirral)에 가서 강인하고 우아한 독일 셰퍼드견 데코(Deco)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했다. 데코는 2007년 11월, 집을 부수고 들어온 침입자로부터 주인인 제인 산섬(Jane Sansom) 부인을 구했다.

어느 이른 아침,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한 데코는 재빨리 덩벼들어 침입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침입자가 가버린 것을 확인한 후에야 데코는 돌아와 제인의 발 옆에 조용히 누웠다. 그는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후 제인의 무릎에 머리를 살며시 놓은 채 그녀를 안심시켰다.

협회 대표들은 제인과 그녀의 가족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데코는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아주 흥분된 모습이었다. 우리가 해피도기 침대를 꺼내자마자 데코는 그것을 낚아채더니 힘센 입으로 꼭 깨물고 즐겁게 좌우로 흔들다가 내려놓고는 그 위에 누웠다. 해피도기 외투는 그에게 잘 어울려서 아주 잘생겨 보였다. 해피도기 과자를 받자 데코는 친구인 데이지와 나누어 먹었다. 데코는 크고 힘이 세지만 또한 아주 순종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경찰조차 데코가 천성적으로 용감하고 힘이 세고 총명하기 때문에 완벽한 경찰견이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제인은 데코를 처음 구조했을 때 많은 인내와 사랑으로 돌보고 훈련해야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는 데코가 행동으로 감사를 표하며 보답한다고 말했다. 제인은 상과 200유로, 다른 아름다운 선물을 받고 매우 감격해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했다. 그녀는 데코와 데이지를 위해 특별한 간식을 사 주겠다고 약속했다. 🌸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 진정한 만물의 영장

칭하이 무상사/ 2007. 2. 22.

포모사 시후 국제 선오 (원문 영어) DVD No. 784

**나**는 인류가 언젠가는 깨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우리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태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른 꽃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꽃이지요. 이 얼마나 간단한 이치인가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를 믿어 주어 기쁘고, 여러분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랑의 생활 방식을 따라 주어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무지한 탓에 잘못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우린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동물들이 정말 가엾고 동물들을 죽이는 사람들도 가엾습니다. 나중에 그 업장이 그들에게 닥칠 테니까요. **환상의 왕은 그가 창조한 하나하나를 모두 확실하게 돌려받길 원합니다. 그것도 몇 배로요.** 지구에서 비프스테이크 한 조각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먹었다고 그걸로 끝났

다거나 청산됐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의 왕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살을 원합니다. 환상의 세계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물질세계에서는 이와 같이 오직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일 뿐입니다. 자비란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인과의 왕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뇌물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세계를 준다 해도 개의치 않으며 삼계를 모두 준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좋아하고, 누가 나쁜 일을 하는지 보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고결한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혹에 저항할 힘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는 뜻

다른 존재를 해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생을 하지 말고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애써 가르쳤는데도 나가서 계속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몰랐을 때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요. 심지어 여러분이 어려서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부모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옳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단지 입맛을 포기하지 못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다릅니다. 입맛은 아주 작은 희생일 뿐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아직도 고기를 먹고 싶어할지라도 그건 아주 작은 희생입니다. 특히 채소의 왕국에 맛있는 채식 음식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 더더욱 말할 것 없지요. 어떤 종교든 채소가 우리의 음식이라고 말하는데도 아무도 그 페이지를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에 귀 기울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이웃을 사랑하라.”**에는 우리의 동물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이웃이 없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말에는 모두가 포함됩니다. 예수는 **“남자와 여자 혹은 어린이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요? 모두입니다. 모두란 사람, 동물, 개, 고양이, 새, 오리, 거위 등등 야생이든 길 들여진 것이든 전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인간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물이 되는 걸 한순간이라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부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이 거대한 다른 생명체와 같이 살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아무 때고 하나씩 하나씩 죽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무력하고 비참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끔찍하겠지요! 동물들의 느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온갖 고통을 안겨 줍니다. 어떤 동물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끝에 가서는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품위 있고 평화로운 죽음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비심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어떤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죽여서 먹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일인 양 행하고 그러고도 우리 자신을 인간이라고, 지성적이라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왕관이 우리 머리 위에 씌워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죽이면 살인자라고 불리며 감옥에 가는 등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수백만, 수조, 셀 수도 없이 많은 동물들을 죽이지만 아무도 우리를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동물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매일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모든 생명들이 두려워하는 공포스럽고 사악한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들의 서식지를 빼앗고 날마다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류 형제자매들에게도 무력으로, 총으로, 핵무기로, 경제적인 제재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두려움을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우리가 무슨 왕관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우리 머리에 왕관을 씌워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지구 어딘가에서 온갖 방식으로, 총이나 칼만이 아니라 학대와 정신적인 압박, 정서적인 스트레스, 육체적 고통을 가하며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매일 서로를 그런 식으로 고통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문명인이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위대해지려면 그저 해치지만 않으면 된다

새해에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인도할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바로잡을 시간이 있을 때 인생에 도달해야 할 고귀한 목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귀한 인간이 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인(聖人)이 되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가를 하거나 거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동물들을 내버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고귀한 것입니다. 즉시 고귀해지지요. 모든 동물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찬미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은 장수를 누리고 행복은 몇 배로 늘어나고 건강은 더욱더 보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끝없이 커질 것이며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칭하이 스승도 필요 없고 입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저 고기만 포기하면 정말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최소한 3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중 박수)

“도살하는 칼을 내려놓는 즉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부처의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물도 죽이거나 먹지 않는다면 즉시 3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3세 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3세계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입맛을 희생하고 고귀한 존재, 만물의 영장이 될 만한 자비로운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르치려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세상이 훨씬 더 좋아져서 동물들은 더 행복해할 것이고 사람들은 더 고양될 것이며 병원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싸움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채식을 하면 생명을 유지할 충분한 음식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전 지구적으로 어떤 비용도 지불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량이 생깁니다. **우리가 채식주의가 되기만 한다면 이 행성의 부는 어떻게든지 자동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될 것이고 다시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고귀한 행위를 하려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 내면의 고귀한 품성을 일깨우자

나는 이 새해에는 이 행성의 사람들이 또한 매우 영리해지고 더욱더 내면을 성찰하고 외부의 유혹과 부정적인 힘의 영향에 눈머는 일 없이, 진정으로 자기 내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강하고 고귀해야 하며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말해 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면을 본다면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마태복음 7:7).”


그래서 나는 그들이 정말로 내면을 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돌아본다면 자신이 고귀한 사람,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것이고,





우리 크기도 안 되는 무고한 동물을 죽여서 먹는 것이 자신의 존엄성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큰 동물도 괴롭힙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고 자기네 세상에서 헤엄치는 바다의 물고기조차 우리는 낚아 올려 잡아먹습니다. 하늘의 동물은 유유히 날아다니며 누구도 해치지 않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들을 쏘아 떨어뜨려 먹습니다. 밀림이나 숲에 있는 동물들도 자기들 일이나 하고 아무 해도 끼치지 않지만 우리는 거기도 가서 사냥하고 죽이고 먹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고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고귀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렇지요? 모든 힘과 지성을 가진 강한 사람이 작고 약하고 무방비한 누군가를 죽이는 게 어떻게 고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고귀할 수 있지요? 중국과 어울락(베트남)의 무술 규칙에서는 전투 중에 말에서 떨어진 사람은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말에서 떨어졌으면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더 작은 동물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사람을 보면 이미 겁을 먹고 얼어붙어 버립니다! 어떻게 자비심이나 연민, 측은한 마음을 갖고 그 동물들을 살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동물들이 이미 겁먹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가며 살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으로서 조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아마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인류가 태어나기 전부터 마음속에 있던 고귀한 목적을 일깨우기를, 고귀하고 순수하고 영웅적인 마음을 일깨우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이런 우수한 품성들이 내면에서 깨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인류가 이런 우수한 품성을 일깨운다면 우리 모두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살생이 없다면 이 행성은 정말 천국이 될 테니까요.** (대중 박수) 

## 주요 연락처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mailto: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

###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mailto:TV@Godsdirectcontact.org)

###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mailto: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mailto: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mailto: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mailto: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mailto: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mailto: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mailto:chinghaiyd@naver.com)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 · SM 보석 · 천의 · 만세동 ·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탁월한 후각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코끼리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야**생 코끼리는 가족 집단을 이루어 이동하며 무리로 생활한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 더 작은 집단으로 나뉘어지거나 동료들보다 뒤쳐졌을 때는 서로의 행적을 뒤밟아야 한다.

성 앤드류스 대학교(University of St. Andrews) 심리학자들은 한 연구에서 케냐 '암보셀리 국립공원(Amboseli National Park)'에 살고 있는 야생 코끼리들이 냄새로써 한 번에 가족 구성원 30마리의 행적을 기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가족 구성원이 집단 속에 있는지, 앞이나 뒤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한다. 암코끼리는 같이 이동하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특히 주의 깊게 점검한다.

우리는 번잡한 쇼핑 센터에서 두세 명의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어렵다. 30명의 종적을 찾는다고 한 번 상상해 보라. 틀림없이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코끼리는 인간보다 우수한 두 개의 장점, 즉 탁월한 후각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



출처:

<http://news.bbc.co.uk/1/hi/sci/tech/7127276.stm>

<http://www.timesonline.co.uk/tol/news/uk/science/article3001086.ece>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중** 국 선양(瀋陽)의 리 여사는 ‘과이과이’라 불리는 1년생 애완 암탉을 기르고 있다. 그녀는 그 암탉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딸처럼 대한다. 과이과이는 리 여사가 입술을 내밀 때마다 부리로 가볍게 ‘엄마’의 입술을 꼬으며 뽀뽀해 준다.

과이과이는 아주 재주가 많다. 그녀는 글자를 알아볼 수 있고 간단한 계산도 할 줄 안다. 리 여사는 ‘開心就好(개심취호)’ 등 한자를 몇 개 적어 붙여 놓았는데, ‘엄마’가 그중 아무 글자나 읽으면 과이과이는 힘들이지도 않고 그 글자위를 몇 번 꼬아 댄다. 이것 말고도 리 여사의 집에는 간단한 산수 문제와 답이 쓰인 숫자판이 걸려 있다. 과이과이는 엄마가 산수 문제를 읽으면 숫자판에 있는 정답 위를 가볍게 꼬아 댄다. 과이과이는 문제마다 정답을 찾아낸다고 한다.



과이과이는 또 과일과 눈·코·입 등의 오관과 자동차 표지판 등의 그림도 분명하게 알아본다. 리 여사는 “과이과이는 기억력이 남달리 좋아요. 학습 능력도 출중하고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현재 그녀는 과이과이에게 일상용품을 알아보게끔 가르치고 있다! 🌸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받고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칭하이 무상사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주문 쇄도

**[뉴욕]** 최근 출간된 칭하이 무상사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이 독자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으며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무상사의 다른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은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은 칭하이 무상사가 직접 쓰고 책 디자인도 직접 하신 책이다. 그녀가 사랑하는 23마리 새의 사진과 그들과 나눈 친진한 대화를 통해 독자들은 높이 날아올라 새들과 함께 우주를 여행하게 된다. 칭하이 무상사는 전에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나는 사람들이 동물의 세계를 더 많이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의 반려라는 마음이 더욱더 가지고, 그들을 더 잘 불살피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 동물은 정말 충명하며, 고귀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읽을 때 행운도 함께 올 것이라며 축복했다. 마음이 즐거울 때 행운도 저절로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인터넷 <http://www.amazon.com>에서 주문할 수 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인기 프로그램인 ‘동물의 세계’는 동물 친구들의 놀라운 지혜와 깊은 감정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며 모든 생명체가 하나 되는 평화로운 미래를 이루려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새로 추가된 10개 위성 채널을 통해 지구 전체로 방송된다. 전세계 수억의 시청자들이 이미 위성 TV를 통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긍정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북미 시청자들은 갤럭시 25 위성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다음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http://www.SupremeMasterTV.com/tw/>, 칭하이 무상사 중국어 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연락처: 1-888-294-1433(수신자 부담) 🌸



칭하이 무상사의 친필 저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은 독자들을 날개 달린 친구들의 충명하고 감동적인 세계로 인도해 무한한 기쁨과 웃음을 선사한다.

참고: [http://www.worldjournal.com/wj-ny-news.php?nt\\_seq\\_id=1651302](http://www.worldjournal.com/wj-ny-news.php?nt_seq_id=1651302)

## 독자들이 칭하이 무상사의 신간을 환영하다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의 친필 저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영문판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닷컴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데 이어, 중문판도 최근 포모사 킹스톤 온라인 서점으로부터 ‘2007년 황

금서적상'을 수상했다. 이 상을 수상하려면 내용이 훌륭하고 매출 실적도 높아야 한다.

이 외에도 킹스톤 온라인 서점의 네티즌 도서 평가 코너인 '감상 나누기 게시판'에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은 '아주 즐거운 책' 부문에서 1위,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국제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피델 라모스 필리핀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라모스 씨는 서평을 통해 "이 책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모두에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염원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해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전세계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에 칭하이 무상사는 감사의 뜻을 표하시고 축복을 보내셨다. "나의 책을 대중들에게 소개해 준 모든 이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에 대해 긍정적인 서평을 해준 모든 훌륭한 독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모든 동물도 가장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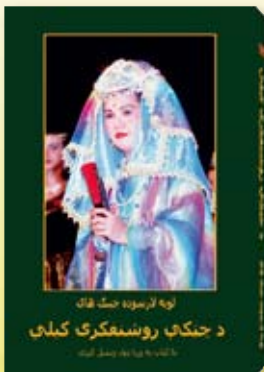
영혼의 고양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견본책자

〈우즈베크어(Uzbek, 우즈베키스탄 주요 언어)〉

〈하우사어(Hausa, 나이지리아 주요 언어)〉

〈파슈토어(Pashto, 아프가니스탄 주요 언어)〉



파슈토어.

**개**인 웹사이트나 포럼,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각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 다국어 웹사이트(<http://sb.Godsdirectcontact.net>)를 링크해서도 됩니다. 서로 힘을 모으면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신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구에 있어 최상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국어가 우리 다국어 목록에 없어서 견본책자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divine@Godsdirectcontact.org](mailto:divine@Godsdirectcontact.org)) 🌸



우즈베크어.

하우사어.

# 2007년 구시 평화상 시상식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뉴스 통신원 (원문 영어)



2007년 ‘구시 평화상 시상식’이 황금시대 4년 11월 21일, 필리핀 마닐라의 메랄코 극장(Meralco Theater)에서 열렸다. 수백 명의 영향력 있는 정·재계 저명인사와 사회 각계 명사들이 참석해, 세계 평화를 증진하고 각 분야에서의 고귀하고 탁월한 업적으로 상을 받게 된 전세계 수상자들과 함께 이 성대한 모임을 지켜보았다.

칭하이 무상사는 인도주의적 활동과 세계 평화를 위한 헌신으로 황금시대 3년(2006년) 구시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구시 평화상 재단 이사장인 배리 구시(Barry Gusi) 경은 직접 스승님을 올해 시상식에 귀빈으로 초대해 개최 기도를 해주시길 요청했다. 스승님은 참석하실 수 없었지만 포모사·홍콩·필리핀 동수들을 보내 시상식을 지원하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위해 이 행사를 촬영하게 하였다.

시상식 전날 밤에 열린 개회식 만찬에서 동수들은 초대 손님 맞이하는 일을 도왔다. 스승님이 준비하신 사랑의 선물도 특별 손님들에게 전해졌는데, 선물을 받은 손님들은 매우 행복해했다. 구시 재단 회장인 마뉴엘 모라토(Manual Morato) 씨는 동수들을 만났을 때, 스승님을 다시 뵙고 싶다는 깊은 갈망을 표현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수상자들이 감동적이고 깨우침이 담긴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는 높이 인정받는 일본 의사이자 ‘아시아 의사협회(Association of Medical Doctors of Asia, AMDA)’ 회장인 스가나미 시게루(菅波茂) 박사의 수상 소감이었다. 국가 간의 상호 원조에 대한 생각을 피력한 그의 연설은 이 행사의 본질을 잘 드러내 주었다. 스가나미 박사는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당시 필리핀 피델 라모스(Fidel Ramos) 대통령이 고베 시민을 돕고자 사심 없이 자신의 한 달 월급을 제공했던 일을 회상했다. 2006년 필리핀 남부 레이테(Southern Leyte)에 어마어마한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와 레가스피(Legazpi)에 태풍이 강타했을 때 스가나미 박사는 이 두 지역에 AMDA 회원을 파견해 구호 활동을 펼쳤다. 그는 일본 국민들이 당시 AMDA의 필리핀 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면서, 이는 그들이 전임 필리핀 대통령의 무아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나라 사이에 오간 인류애와 우정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듣고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2006년 구시 평화상 수상자인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도 이번 시상식에 참석했다. 시상식 마지막에 라모스 전 대통령은 영원한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세계의 희망은 우리 모두에게 달렸다는 말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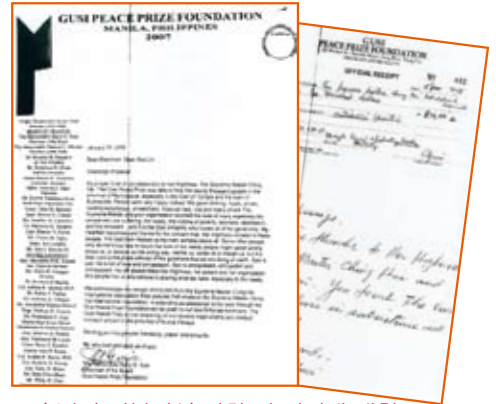




자신의 마음을 청중들에게 전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건립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결집된 노력을 통하지 않는다면” 이 상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2007년 구시 평화상 시상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에 딱 맞는 결론이었다.

시상식 후 배리 구시 경은 스승님께 편지를 보내 이번 행사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후 스승님은 필리핀의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구시 평화 재단의 고귀한 임무를 위해 미화 만 달러의 기부금을 보내셨다.


배리 구시 경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평화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신의 축복 속에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진심으로 동감하며, 또한 구시 평화 재단의 고귀한 노력에 천국의 축복이 충만하길 기원한다. 



스승님이 기부하신 미화 만 달러에 대한 구시 평화 재단의 감사 편지와 영수증.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2007년 구시 평화상 시상식 행사를 보시려면 다음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VIP/EE455.php>

스승님의 농담 

## 형 대신 앉아 있는 거예요

칭하이 무상사/ 2001. 4. 21.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DVD No. 729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모자를 앞에 놓아두고 “장님임.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적어 놓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 부인이 모자 안에 1달러를 켜지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돈이 날아가 버리자 그 남자는 별떡 일어나 달려가서 돈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말했지요. “장님임.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써 있더니 장님이 아니었군요!” “예, 맞아요. 저는 아니에요. 전 거지가 아니에요. 제 형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녀가 물었지요. “그럼 당신은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냥 형 대신 잠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형은 지금 어디 있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형은 영화 보러 갔어요.” 



스승님의 농담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감상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94/jk1.htm>

<http://www.Godsdirectcontact.us/sm21/enews/www/194/jk1.htm>

스승님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오셨다. 어딘가에 재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스승님은 즉시 재정적인 지원을 보내시고 재해 지역에 구호 팀을 파견해 도우신다. 이 같은 구호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고 있다. 스승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축복, 도움으로 세계적인 재난이 최소화되었음은 분명하다.

스승님께서 세계 각지의 정부와 단체, 구호 대원들의 사심 없는 노력을 표창하고자 다음과 같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

“이재민들에게 관심과 구호품을 가져다준 모든 국제적인 원조에 감사를 보냅니다. 또 자신의安危를 돌보지 않은 채 시간을 내어 좋지 않은 도로 여건과 여러 악조건을 뚫고 멀리까지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원조를 제공해 준 모든 구호 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과 고귀한 희생이 하늘의 충만한 축복으로 보답받길 기원합니다.”

## 멕시코

### 타바스코에 베풀어진 신의 사랑

멕시코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11월 초에 불어 닥친 허리케인 노엘(Noel)의 여파로 심각한 재난이 일어난 것을 아신 스승님은 동수들에게 도미니카 공화국·쿠바·멕시코·아이티에서 긴급 구조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시며 이들 국가를 돕기 위해 미화 6만 달러를 기부하셨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93호를 참고하세요.)


멕시코 타바스코(Tabasco) 주는 수위가 2m가 넘어 수백 가구가 집을 떠나 보호소로 옮겨야 했다. 21명의 동수들로 구성된 구호 팀은 11월 초에 아직 아무 원조 받지 못한 몇몇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멕시코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이었다. 타바스코 카르테나스(Cardenas) 시 농업국장은 구호 팀에게 필요한 기재와 지원을 제공해 주었다.

동수들은 5개 조로 나뉘어 승합차로 수재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마을에 총 3,500개의 식량 보급품 꾸러미와 뉴스잡지를 나누어 주었다. 구호품을 받은 가정에서는 “물건이 정말 좋군요!”라고 소리치며 기뻐했다. 마지막으로 한 작은 마을을 찾아가는 때는 100여 가구분의 꾸러미만 남아서 우리는 주민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고 알려야 했다. 몇몇 사람들이 기다리던 줄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 기적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품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 심지어 두 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놀랍게도 원래 차에 실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배포했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구호 팀도 그와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 동수들은 옛날에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에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신께서 이 재민들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목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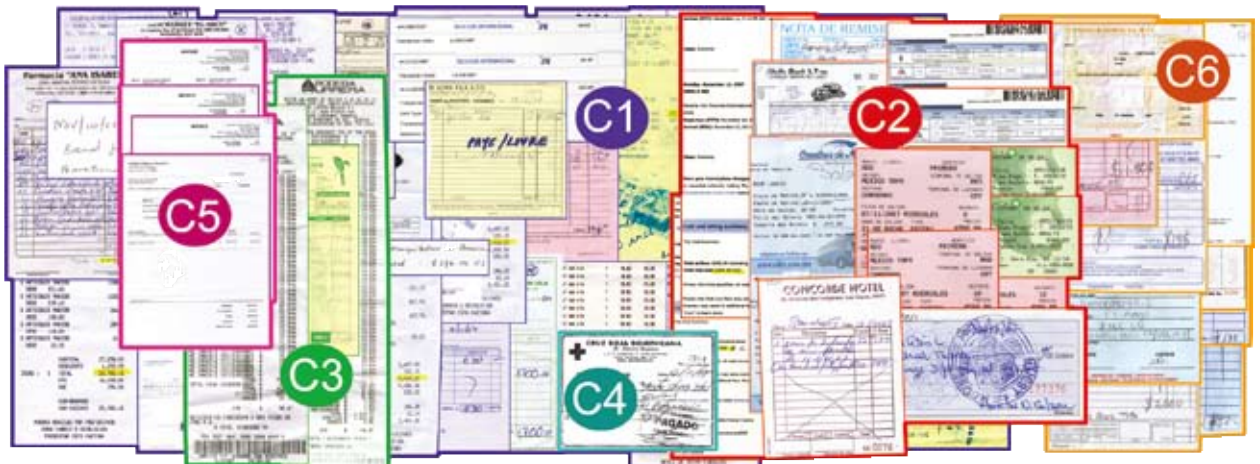
우리는 타바스코 수재민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온 대표들을 대상으로 채식 강습회와 비디오 강연회를 마련해 영성의 씨앗을 심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농업국의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이 영성의 씨앗들이 이번 구호 활동을 통해 사랑의 바다와 연결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빠른 시일 내에 무성하게 자라나길 바란다. 



###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카리브 해 수재민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미국 달러)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식품(쌀·콩·빵·옥수수·물·우유·분유·렌즈콩·오트밀·식용유·땅콩버터·과자 등)	55,257.28	C1
여행 비용(교통비·주차비·숙식비)	11,895.69	C2
보급품과 일용품(비누·세제·막대걸레·빗자루 등)	3,283.37	C3
적십자사 기부금	885.77	C4
현수막, 전단	1,353.29	C5
잡비(운전자·통역원 등의 비용)	1,207.31	C6
합계	73,882.71	



## 인도네시아

# 숨바와 지진 피해자들에게 사랑의 구호품을 전달하다

인도네시아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지역 공무원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다.

2007년 11월 25일, 인도네시아 숨바와(Sumbawa) 섬에서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27개 마을 3만여 명 주민들의 삶에 큰 변동을 가져왔다.

이재민들을 걱정하신 스승님은 즉시 미화 5천 달러를 보내 구호 작업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자카르타와 발리 센터 동수들은 신속하게 구호 팀을 만들었다. 그중에는 의사 두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기부금을 가지고 12월 4일 숨바와의 비마(Bima) 시로 날아갔다.

구호 팀은 도착한 후 쌀 4,000kg, 라면 300상자, 방수포 100장을 구입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지역인 돔푸(Dompur) 시 적십자 센터로 가져갔다. 적십자사에서 다른 피해 지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날 전달하기 쉽게 구호 물자를 작은 소형 꾸러미로 포장했다. 12월 5일과 6일, 적십자사 회원과 자원 봉사자, 경찰, 그리고 구급차 한 대와 적십자 차량 세 대와 함께 동수들은 일곱 마을을 다니며 트럭 두 대에 가득 실린 구호품을 나누어 주었다. 구호 팀은 음식과 생활용품을 나눠 주는 것 외에 이재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무료 진료도 실시했다. 또한 킬로(Kilo) 읍에 있는 한 학교를 보수하기 위해서 적십자사를 통해 시멘트 200포를 전달했다.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구호품을 포장할 때 견본책자와 '대안적인 삶' 전단을 적십자사 회원들과 자원 봉사자, 경찰관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은 자세히 읽어보고는 그 사랑의 메시지에 매우 감동했다. 어느 경찰관은 스승님의 책을 읽는 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임무조차 잊어버릴 뻔했다. 마지막 날 저녁 송별회에서 동수들은 채식과 빛과 소리의 명상법에 관한 질문에 답해 주었다. 몇몇 사람들은 채식에 상당한 관심을 보



스승님의 간행물을 자세히 읽고 있는 적십자사 회원.



의사의 진료가 절실히 필요했다.




지역 적십자사를 통해 학교 건물 보수용 시멘트 200포를 기증하다.



적십자사 회원과 지역 주민과 함께한 송별회.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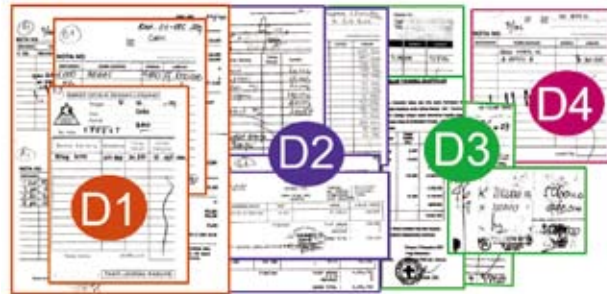
동수들은 이번 구호 임무를 통해 자비심을 배우고 키우는 한편 숨바와 섬 이재민들에게 신의 사랑을 가져다줄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드렸다. 



###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인도네시아 동부 NTB 지진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인도네시아 루피아)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식품(쌀·라면·우유·사탕)	30,177,600	D1
약품	7,347,200	D2
방수포, 시멘트	17,300,000	D3
교통비	350,000	D4
기타	8,722,000	
합계	63,896,800 (미화 6,870,62달러)	



## 에티오피아

# 스승님의 사랑이 에티오피아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다

케냐 동수

**아**프리카 동쪽 나라 에티오피아에서는 수많은 고아들이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헨옥 메게르사 (Henok Megersa) 목사는 한정된 자금으로도 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 최근에는 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중고차까지 팔기까지 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관한 소식을 듣고 스승님이 영적 지도자이자 박애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방송국으로 편지를 써서 스승님의 도움을 구했다.

스승님은 친히 그에게 답장을 보내시고 미화 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하셨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19일, 케냐 동수들은 헨옥 목사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그가 돌보는 환자들을 같이 방문했다. 우리는 그들이 하루빨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고양되어 병원에서 곧 퇴원할 수 있기를 신께 기도했다. 의사들은 병원에 약 2,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면서 어떤 경우는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한 탓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헤녹 목사와 그가 보살피는 고아들, 동수들의 단체 사진.

우리는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Addis Ababa)의 길거리에서 집 없는 아이들과 장애인 아이들, 가난한 가족들을 많이 보았다. 이런 상황이 헤녹 목사가 그들을 돕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알려 주었고 재정



가난 때문에 많은 가정의 길거리로 내몰린다.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힘껏 고아들을 돌보면서 신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정착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집을 짓도록 도왔다. 그러다가 최근 기금이 바닥나자 스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던 것이다. 우리가 스승님의 도움을 전하자 그는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또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도 편지를 보내 스승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신께서 헤녹 목사의 고귀한 노력을 축복하시길 바라며 모든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랑을 발휘해 소외된 이들을 돕길 기도한다. 🌸



## 헤녹 목사가 스승님께 보낸 연하장

(원문 영어)

칭하이 무상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2008년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게 되어 우리는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은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보여 주신 당신의 특별한 사랑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당신께서 보내 주신 미화 만 달러는 50명의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의 축복을 기원하며

헤녹 메게르사 목사



칭하이 무상사의 원조를 받고 있는 아디스아바바의 아이들.





## 인도

# 두 자매가 입을 합쳐 물과 의망을 가져다주다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 금시대 4년(2007년) 12월 28일, 포모사 동수들은 인도 동북부의 페시라가(Peshragha) 마을에 도착해 하즈라 바누(Hazra Banu)와 라비아(Rabia), 이 놀라운 두 숙녀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 지역에는 전기도 없고 물도 부족해서 마을 사람들은 종종 가까운 연못의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다. 어떤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두 자매는 자신들의 손으로 우물을 파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기로 결심했다. 꼬박 11월 한 달 동안 맨손으로 25~30피트 깊이의 우물을 판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자 아주 행복해했다. 새 우물은 지금 30명의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채소밭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하즈라 바누 씨와 그녀의 동생 라비아 씨.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용감한 두 자매가 판 25~30피트 깊이의 우물.

동수들이 스승님의 출판물과 사탕 등 사랑의 선물을 주자 두 자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다. 이어서 그들은 나중에 마을을 위한 일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스승님께서 보내 주신 미화 1,500달러(6만 루피 상당)의 현금을 받고 뿔 듯이 기뻐했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스승님께서 보내 주신 격려와 실질적인 도움에 거듭 감사하며 그 돈을 유용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주변에 기쁨을 가져다주려는 이 두 자매의 용기와 결심은 마을 주민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이번 만남은 동수들에게 있어 아주 놀랍고도 즐거운 경험이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신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세상의 한 모퉁이에 천국을 가져다줄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매우 감사히 여겼다.



## 캐나다

#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을 전하다

몬트리올 뉴스그룹 (원문 영어)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나눔의 정신으로 함께 모인 캐나다 몬트리올 협회 회원들은 노숙자들과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22일 토요일, 몬트리올 센터는 신선한 샌드위치와 선물 가방을 준비했다. 각 가방마다 맛있고 영양 있는 채식 샌드위치와 주스, 초콜릿, 웨이퍼, 과일 등이 들어 있었다. 동수들은 시내에 있는 노숙자 보호 시설인 '아버지의 집(La Maison du Père)'을 방문했다. 그곳에 있던 노숙자들이 아주 기뻐하며 선물을 받았다.

'어떤 단체가 밖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 주고 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야간 침상을 배정받으려고 줄 서 있던 노숙자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동수들에게로 달려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선물이 동이 났다.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행복해했다. 어떤 이들은 정말 필요하던 참에 선물이 때맞추어 왔다고 말했다. 그때 우리는 스승님께서 이 즐거운 휴가철에 직접 선물을 가져다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을 일깨워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 미국

#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노숙자들에게 온정과 사랑을 가져다주다

샌프란시스코 뉴스그룹 (원문 영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샌프란시스코는 그 어느 때보다 추웠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20일, 샌프란시스코 센터 사형사저들은 재빨리 겨울 옷을 구입해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전달했다.

우리는 백 개의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는데, 꾸러미마다 침낭·장갑·양







말·겨울 모자·채식 라면 1박스가 들어 있었다. 이 외에도 몇십 벌의 스웨터도 나누어 주었다.

이 선물은 길거리의 불우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주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형사저들은 사랑과 열의를 다해 임무를 완수했다. 전능하신 덕분에 날씨가 우리를 도와주었다. 며칠간 밤에 비가 내렸었는데 그날 밤에는 비가 안 와서 절실히 필요한 이 선물들을 무사히 전달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마음에 온정과 기쁨을 가져다줄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크리스마스 디저트를 나누다

미시간 뉴스그룹 (원문 영어)

**미**시간 센터 동수들은 사탕·오렌지·과자·‘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이 들어간 300개의 꾸러미를 ‘성 알로이시오 지역 사회 센터(St. Aloysius Community Center)’ 노숙자 친구들에게 가져다주었다. 또한 스승님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도 그곳 휴게실에 놓아두었다.



## 노숙자들을 위한 명절 선물 나누기

텍사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휴**스턴은 텍사스 주에서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그들 중 상당수가 2년 전 뉴올리언스에 덮친 허리케인 참사를 피해 온 사람들이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16일, 휴스턴 센터 동수들은 시내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연례 선물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우리는 또한 맛있는 채식 샌드위치와 뜨거운 커피, 생수, 크래커, 맛있는 과자도 대접했다. 노숙자들은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며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어떤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이 다시 찾아올 줄 알았어요. 줄곧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단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해 줍니다.” 인근 보호 시설의 직원은 동수들이 마련한 채식 음식을 보고 자기가 먼저 스승님의 이상과 신념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날 온종일 사랑과 영성의 기운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선물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해 동수들은 많은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스승님께 바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스승님의 인도와 무조건적인 사랑, 아름다운 은총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



#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 식사를 대접하다

오리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 금시대 4년(2007년) 12월 16일, 오리건 센터 동수들은 한 지역 보호소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점심을 제공했다. 우리는 가정 학대를 피해 온 이들 여성과 아이들에게, 동수가 운영하는 음식점 ‘스위트 레몬 비스트로(Sweet Lemon Bistro)’에서



점심 식사를 하도록 정중히 초대했다. 동수들은 그들에게 정식 오찬을 대접하고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가 하면 각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또한 스승님의 아름다운 책인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도 보호소에 기증했다. 이 행사는 보호소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올란다가의 집(Yolanda House)’ 보호소의 셸리 마사벨로(Shelly

Massavello) 소장은 스승님께 매우 감동적인 이메일을 보냈다. “.....보호소의 모든 거주자와 자원 봉사자들은 진심 어린 사랑과 온정, 존중의 마음으로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말문을 잃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마음의 선물을 받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좋아했고, 환상적인 점심을 좋아했고, 중요한 손님처럼 대접받아서 좋아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까지도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가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학대를 피해 온 우리 생존자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며 직원들과 자원 봉사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 크리스마스 기간에 특별한 온정을 나누다

12월 22일, 오리건 동수들은 ‘블랑셰 하우스(Blanchet House)’에서 그 지역 노숙자 친구들에게 아주 따뜻한 점심을 대접했다. 동수들은 다양한 종류의 요리와 후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담요·면양말·신발 등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견본책자도 나누어 주었다. 특히 노인들과 여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에 신경을 썼다. 노숙자 친구들은 매우 만족해하며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대부분이 편안히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씩 가져다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싸 달라고 하기도 했다. 즐거운 휴가 기간의 어느 춥고 습한 날에 열린 이 행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끔 일깨워 주었다. 🌸







## 파나마

#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다

파나마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보** 카스텔토로(Bocas Del Toro)는 파나마의 주요 도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방 중의 하나다. 관광업을 통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 수입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여건에서 살고 있다. 한 동수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찬귀놀라(Changuinola) 시의 '영양 보조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어린이들에게 옷과 장난감을 선물하자고 제안하자 동수들은 열렬히 지지했으며 비입문자들까지 참여했다. 크리스마스 기간 중에 사랑이 담긴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과 그 어머니들 모두 매우 행복해했다. 파나마 동수들은 아름다운 어린이들과 스승님의 사랑을 나눌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히 여겼다. 🌸



## 영국

# 축복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자선 점심

런던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 금시대 4년(2007년) 12월, 런던 센터 동수들은 자선 기구인 '에이스 클럽(Ace of Clubs)'에서, 모두가 고대하던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례 자선 크리스마스 오찬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케이크·민스파이·커스타드·탄산음료·초콜릿·사탕을 곁들인 풍성한 채식 뷔페를 준비했다. 채식인인 한 여성은 채식 햄과 소시지를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 또



동수들은 특별한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고서 추첨 행사를 열어 침낭, 담요, 따뜻한 재킷 같은 온정 어린 선물도 나누어 주었다.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먹어 본 것 중에 최고의 식사였으며 이 산타클로스 또한 이제껏 만난 중에 최고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동수 모두를 위한 진짜 잔치였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넘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또한 흐뭇했기 때문이다. 🌸



## 대한민국

# 스승님의 사랑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소를 되돌려 주다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2007년 11월, 칭하이 무상사는 북한이 지난번 홍수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미화 2만 달러를 보내 수재민들을 돕게 하셨다. 이번의 관대한 원조는 지난 9월 미화 3만 달러를 기부하신 데 이어진 것이었다. 이번 기부금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밀가루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11월 30일, 한국 구호 팀은 2,750부대로 포장된 총 55톤의 밀가루를 세 대의 트럭에 나누어 싣고 개성까지 운송했다. 모든 밀가루 부대에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이름과 로고가 인쇄되었다. 우리 구호 팀은 최초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이름이 새겨진 승합차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는 북한을 향해 내딛는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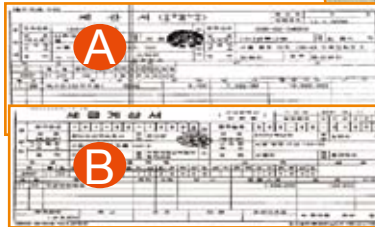
북한 주민들의 얼굴에 미소를 되돌려 준 이번 사랑의 배달이 가능하도록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축복되고 편안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북한 수재민 돕기 지출 일람표

(단위: 한국 원화)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밀가루	19,525,000	A
운송 비용	1,288,000	B
합계	20,813,000 (미화 22,413달러)	



## 동물 친구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20일, 한국 동수들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동물 보호소 세 곳에 성금과 함께 채식 개 사료 3.5톤을 지원했다. 그중 한 곳인 평택의 '행복한 보금자리'에는 200마리가 넘는 유기견





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재정난으로 인해 개들이 많은 질병을 앓고 있었다.

보호소 주인인 김계영 씨는 사료가 다 떨어져서 기적을 바라며 기도했는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매우 고마워하며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애원동물이 아프거나 늙었을

때 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보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동수들은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기에 동물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할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드렸다.

## 가난한 사람들과 건강 채식 김치를 나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맛있고 건강에도 이로운 채식 김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동수들은 지난 봄부터 영동 센터 근처 땅에 유기농 배추를 재배해 왔는데, 신의 축복으로 올해 풍성한 수확을 했다.

동수들은 영동 센터에 모여 약 천 포기의 배추와 500여 개의 무에 각종 친환경 과일과 약초를 넣어서 100상자가 넘는 김치를 담갔다. 이 김치는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장애인들이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들 모두 명절 연휴에 맛있는 건강 김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 에스더의 집으로 스승님 사랑을 가져다주다

안동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에 스터의 집’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곳에는 약 30명의 미혼모와 40명의 고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황금시대 5년(2008년) 1월 4일, 안동 센터 동수들은 10여 가지의 맛있고 영양 많은 채식 요리를 준비해 에스더의 집을 방문했다. 그곳 원장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좋아했으며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고마워했다. 원장은 우리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명상과 채식에 관해 많은 질문을 했다. 어떤 직원은 채식 햄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동수들은 또 식당 한쪽에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대안적인 삶’ 서류 폴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을 놓아두고 사람들이 읽고 가져가도록 했다. 이번 방문은 에스더의 집 가족들과 함께 스승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



## 동물 보호 단체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의 기부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25일, 스승님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신간 발표회에서 ‘유기동물의 집 기금회’의 왕리링(汪麗玲) 이사장과 ‘타이완 동물’의 설립자인 셴 맥코맥(Sean McCormack) 씨는 화상회의를 통해 스승님과 처음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스승님은 사랑으로 유기 동물들을 보살피는 이들의 노력을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단체에 각각 만 달러씩 기부하기로 약속하시며 그들이 이 고귀한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셨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92호 기사 참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11월 16일과 12월 26일에 ‘사랑의 바다 문예광장’에서 기증식을 가졌다. 왕리링 여사는 스승님이 주신 사랑의 성금으로 늙은 개들이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개 집의 실내 벽과 바닥 모두 폭신하게 만들어, 수용소에 있는 수십 마리의 늙은 개들이 쇠약한 체력이나 눈병 때문에 벽에 부딪쳐 다치는 일이 없게 하고 활발한 젊은 개들과 같이 살다가 부딪혀 다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승님의 사랑 어린 기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보답일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 기증식에서는 ‘타이완 동물’의 천슈취안(陳淑娟) 양과 라이언 벨(Ryan Bell) 씨가 대표로 미화 만



달러를 받았다. 국제협회는 이들에게 스승님의 출판물 등 영성, 선물들도 전달했다. ‘타이완 동물’의 두 대표는 스승님의 애정 어린 지지에 거듭 감사를 표하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계속 질문했다. 그들은 채식 개 사료가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얘기를 듣고선 기꺼이 먹이고 싶어했다. 그래서 국제협회에서는 다섯 부대의 ‘Lively Doggie’를 기증함으로써 ‘타이완 동물’이 동물 친구들에게 채식 사료를 먹여 모든 동물 친구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는 자비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격려했다. 🌸





##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

포모사 뉴스그룹 종합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4년(2007년) 크리스마스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포모사 전국 각 센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성스런 사랑을 본받아 소외된 사람들에게 온정과 희망을 가져다주고 보다 따뜻하고 화목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연례 사랑의 행사를 개최했다.

### 타이베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타이베이 동수들은 특별히 보온 바지 300벌을 구입해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24일, 타이베이 현 사회국과 타이베이 현 자원봉사협회의 '노숙자의 집'에 위탁해 거리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

사회국 구호·보조과의 린웨이승(林偉雄) 과장과 자원봉사협회의 황메이잉(黃梅英) 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바다 문예광장'에서 조출한 기증식이 열렸다. 린과장은 크리스마스에 옷을 기증해 준 덕분에 노숙자 야간 탐방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되었다면서 스

승님과 국제협회의 관심에 무척 고마워했다. 또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노숙자들을 돌보아 온 이 숭고한 두 사람에게 스승님의 출판물과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대안적인 삶' 서류 폴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 볼펜 등도 선물했다.

### 신주

**12**월 20일 세모의 추운 겨울, 신주 센터는 '신주 노숙자 쉼터'의 요청에 따라 DVD 플레이어와 주방용품 등의 물품을 기증하는 한편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등 영성 서적들도 전달해 쉼터의 노숙자들이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기원했다.

이 외에도 신주 센터는 12



월 26일 신주 현 아메이(峨眉) 초등학교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당당하고 근심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1만 NT(한화 약 350만 원)의 학자금을 전달했다. 쉬파빈(徐發斌) 교장 선생님은 그 기부금을 받고, 학교가 벽지에 위치해 모든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 이렇게 작은 마을에까지 사랑을 보내 줘서 너무나 감동했다고 말했다.

## 타이중

**12** 월 20일부터 21일까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중 센터 회원들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실천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우리는 중증 심신장애아들을 돌보고 있는 민간 단체 '마리아 우펑 보육원'과 심신 장애인과 유기 영아, 학대 아동들을 24시간 돌보고 있는 '타이중 영아원'을 방문해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했다.

12월 20일, '마리아 우펑 보육원'을 방문한 협회 회원들은 많은 물품을 기증했다. 이 중에는 매일 많은 양의 기저귀를 빨 수 있는 초대형 세탁기, 이 예쁜 아이들의 생활에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할 노래방 기계와 텔레비전도 있었다. 다음날에는 '타이중 영아원'을 방문해 영아원에 시급히 필요한 정수기 한 대와 LCD 컴퓨터 모니터 두 대를 기증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경의를 보냈다.



## 난터우



**난** 터우 센터 동수들은 크리스마스에 '인애의 집'의 작은 천사들과 '안양원'의 연로한 보살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신의 사랑을 나누었다. 크리스마스의 온정 어린 전통에 따라 동수들은 먼저 작은 천사들에게 소원을 적은 카드를 쓰게 했다.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파악한 동수들은 그에 맞춰 물건을 구입하는 한편 아이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별도의 깜짝 선물도 준비했다. 아이

들은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받고 뽀짝이 기뻐했다.

'안양원'을 방문할 때는 양로원에 요긴한 침구 108세트와 함께 동물들의 사랑을 이 나이 든 현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스승님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도 기증했다.







## 장화

**장** 화 현 해안 벽지에 있는 ‘신바오교회사회사랑협회’ 황춘이(黃春益) 목사는 오래전부터 불우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백 명이 넘는 아이들을 보살폈고 현재는 40명의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다. 크리스마スイ브에 장화 동수들은 과수원에서 방금 딴 오렌지와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현미, 손수 만든 장난감, 과자, 사탕, 견본책자, 뉴스잡지와 성금 1만 NT, 그리고 충만한 신의 사랑을 가지고 이 소외된 아동들을 방문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핑둥



**크** 리스마스와 새해가 다가오자 라이이 센터는 풍성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동수들은 천사 분장을 하고서 라이이 향 이린(義林) 촌 교회의 지도 교사인 가오아이주(高愛珠) 양과 함께 그 지역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앞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スイ브 행사도 가졌다. 다음날에는 부락 추장과 가오 양의 안내로 부락 게시판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포스터를 붙이고 스승님의 신간도 지역 8개 교회에 기증했다. 오후에는 동수들이 기증한 옷과 생필품을 지역 ‘사랑의 옷 보내기 협회’에 전달했다. 그 옷은 협회 자원 봉사자들을 통해 가난한 가정에 보내질 것이다.



## 지룽

**황** 금시대 5년(2008년) 1월 11일, 지룽 센터는 ‘런안재단(人安基金會)’에서 운영하는 한 노숙자 쉼터에 침낭 20개와 위문금 2만 NT, 뉴스잡지를 기부하고 스승님의 사랑을 전달했다. 지룽의 노숙자 쉼터는 오래전부터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옷, 목욕 시설, 응급 원조, 의료 및 취업 지원과 같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란

1월 20일 이란(宜蘭) 센터는 '창세재단'의 뤼동런안(羅東人安) 지부와 함께 노숙자 친구들을 위한 채식 송년 만찬회를 개최했다. 100명 이상의 노숙자 친구들이 참여한 가운데 먼저 스승님의 DVD를 상영하고 스승님 시 낭송을 들었다. 그들이 만찬을 즐기는 동안 동수들은 계속해서 재미있는 공연을 했다. 모두가 즐거운 분위기에 폭 잠겼다. 만찬 후에 우리는 노숙자 친구들에게 목도리와 사탕을 선물로 주며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했다.



## 가오슝



가오슝 현 산간벽지의 가난한 원주민 아동들은 점심 급식비를 낼 형편이 못 된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이 때문에 학교에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한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가오슝 센터는 이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가오슝 현 교육청 체육보건과에 20만 NT를 기부했다. 이 외 국제협회는 체육보건과에 스승님의 신간도 기증했다. 뤼루이편(呂瑞芬) 교육장과 유슈후이(游淑惠) 과장은 국제협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한편 이 신의 자녀들을 돕고자 하는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들은 이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런 도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언젠가는 이 사랑을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희망했다.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humanitarian>

(연도, 국가/지역, 사건별 검색 가능)





##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내 자선·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표 1과 표 2 총계: 514,393NT(미화 약 15,893달러)

표 1: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명세표

(단위: NT)

장소	날짜	활동 내역	금액	부록
타이난	2007. 11. 14.	타이난 민터 개방 교도소 재소자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7. 11. 17.	완화 복지관의 요청으로 독거 노인들을 방문해 건강과 영양 상태를 살피고 건강식품·손난로·파스·영성 서적 기증.	45,060	A
장화	2007. 11. 24.	장화 시청의 주관한 '향토음식축제'에 참가해 향토 전통 채식 요리를 보급하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소식을 알림.	6,630	B
자이	2007. 11. 24.	'구국단 신강 위원회' '재단법인 천슈류안 교육기금'이 주최한 보호와 건강한 식생활 장려 및 채식 시식회 행사를 후원해 대중들에게 동물 사랑과 조화롭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생활 환경 조성을 호소함. (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7. 11. 29.	신디엔 약물치료센터를 방문해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영어 회화 수업 진행. (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7. 11. 30.	신디엔 약물치료센터 재소자들을 위한 '건강 채식 요리 강습반'을 개최해 재소자들의 전문 기술 습득을 도움.	4,000	C
타이베이	2007. 12. 1.	타이베이 시와 현에 있는 30개 주요 도서관, 13개 대학교 및 전문대 도서관, 5개 사회 복지 단체(타이베이 현 생명사랑협회 등), 4개 교정기관(타이베이 교도소 등)에 영성 서적을 기증해 대중들에게 정신의 양식을 제공함.	66,244	D
타이베이	2007. 12. 3.	신디엔 약물치료센터 재소자들을 위한 '건강 채식 요리 강습반'을 개최해 재소자들의 전문 기술 습득을 도움.	10,000	E
장화	2007. 12. 4.	장화 현 텐중 향 등소에서 '채식 요리 강좌' 개최.	1,985	F
화롄	2007. 12. 18.	벽지 학생 지원 활동. 화롄 현 쉬에텐 초등학교에서 '생명존중·동물사랑' 행사를 개최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생필품 기증.	8,177	G
타이중	2007. 12. 20.	심신 장애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마리아 우평 보육원'의 원생들에게 물품 기증.	61,415	H
타이중	2007. 12. 21.	'향상아동복지재단'의 불우 아동 방문, 물품 기증.	56,105	I
타이베이	2007. 12. 21.	우라이 초·중학교에 채식 점심을 제공하며 자비로운 채식 생활 방식 장려.	3,000	J
신주	2007. 12. 22.	저울 온정의 손길 보내기, '신주노숙자쉼터'에 생활용품 기증.	6,679	K
장화	2007. 12. 23.	'신바오교회 사회사랑협회'의 불우 아동 방문, 음식·장난감·위문금 전달.	9,500	L
타이베이	2007. 12. 24.	저울 온정의 손길 보내기-보온 바지 300벌을 구입해 '노숙자의 집'에 기증.	44,100	M
장화	2007. 12. 24.	양서 나누기-현내 각급 학교 및 슈수이 향 산시 촌 마을과 단체에 영성 서적 기증.	22,495	N
신주	2007. 12. 25.	'생명존중·동물사랑'의 고귀한 이상을 제창, 국립자오통대학교에서 도서 전과 채식 요리 시식회 개최.	6,558	O
신주	2007. 12. 26.	아메이 초등학교의 고학생들에게 학자금 기증.	10,000	P
타이베이	2007. 12. 26.	신디엔 약물치료센터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방편법 지도, 영어 회화 수업 진행. (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7. 12. 31.	타이베이 시와 현의 44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및 병원에 영성 도서 기증, 대중들에게 정신의 양식 제공.	56,445	Q
총계:			418,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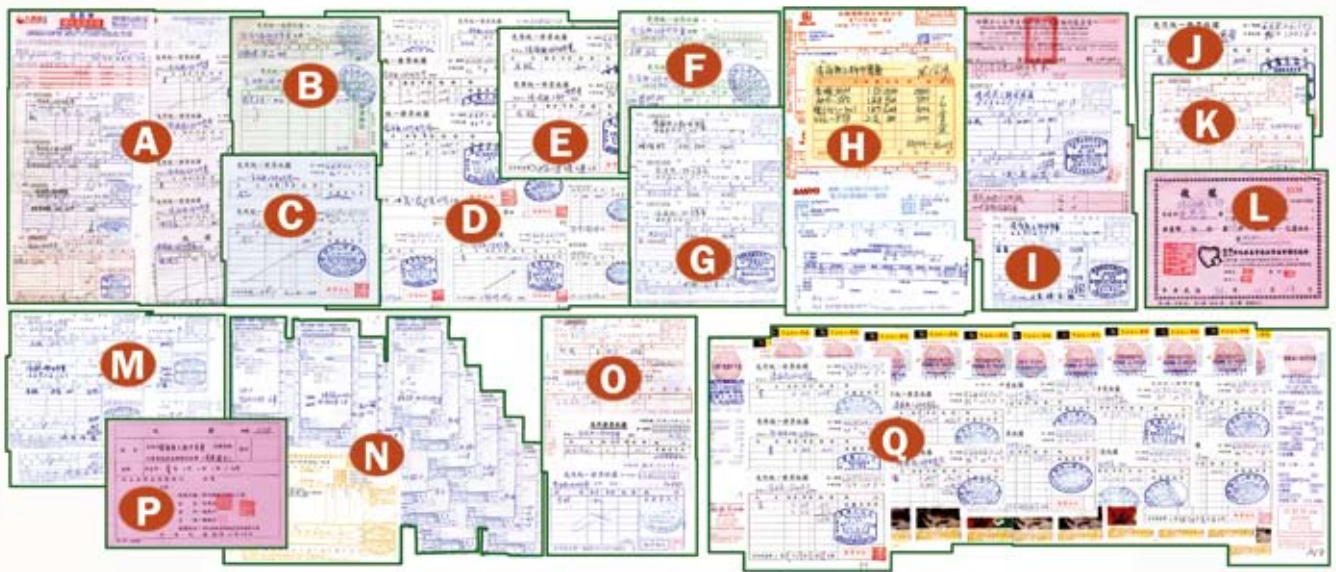


표 2: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내 극빈 가정 돕기 지출 일람표

(단위: NT)

2007년 11월			2007년 12월		
장소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부록
타이베이	5	21,000	5	21,000	1
신주	1	4,000	1	4,000	2
미아오리	5	15,000	3	9,000	3
타이중	1	5,000	1	5,000	4
장화	1	3,000	—	—	5
자이	2	6,000	1	3,000	6
월별 소계:	15	54,000	11	42,000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천상의 상점(<http://www.theCelestialShop.com>)을 방문해 인터넷으로 구입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mailto: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 계좌 번호: 19259438(포모사 내 주문 시)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우리 서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또는 폭넓게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 아프리카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냉:  
코토노우/ Mr. Yedjenou Georges/ 229-93076861/ smchwisdom@gmail.com  
코토노우/ Mr. Yedjenou Sylvestre/ 229-21380404/ yedsylves@gmail.com  
코토노우/ Mrs. Hounwanou Sessito Lucie/ luxe21@yahoo.ca  
포르토노보/ Mr. Hounhoui Mahouge Didier/ 229-90-93-29-99/ smptononovo@yahoo.fr  
★ 부르키나파소: Ouagadougou/ Mr. YAMEOGO Honore/ 226-70-62-34-58/ honoreyam@yahoo.fr  
★ 카메룬:  
두알라/ Mr. Daniel Xie/ 237-3-3437232/ smcameroon@gmail.com  
두알라/ Mr. Thomas KWABILA/ 237-99-15-05-73/ thomaskwa@yahoo.fr  
두알라/ Mr. BIANE Alain Frederic AHMADOU/ 237-99-86-50-26/ alainbiane@yahoo.fr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킨샤사/ Mr. Hung Lui-Liang/ 243-813611939/ blessedcongo@yahoo.fr  
킨샤사/ Mr. Mbau Ndonge Abraham/ 243-811433473  
★ 가나:  
아크라/ Mr. Amuzu Kwei Samuel/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아크라/ Mr. Emmanuel Koomson/ 233-244170-230  
★ 케냐: Mr. Chin Szu Yao/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5197/ razahidah@hotmail.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lius@intnet.mu  
★ 나이지리아:  
예니고아/ Mr. Harry Juliana/ 234-8032365567/ 234-805-802/ 8206brayila@yahoo.com  
★ 콩고공화국:  
브라자빌/ 센터/ 242-5694029, 242-5791640/ goldenagecongo@yahoo.fr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76742-5040/ emzinikababa@yahoo.com  
★ 토고:  
팔리메/ Mr. Dossouvi Koffi/ 228-905-42-76/ jdossouvi@yahoo.fr  
팔리메/ Mr. Late Komi Mensa/ 228-441-09-48/ smkpalimetogo@gmail.com  
로메/ Mr. GBENYON Kuakui Kouakou/ 228-902-72-07/ kgbenyon@yahoo.fr  
로메/ Mr. GERALDO Misbaou/ 228-022-78-44/ mmylg@yahoo.fr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264-9807/ semazima@yahoo.com

### ■ 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acasa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3-4625964  
★ 브라질:  
벨렘/ Ms. Cleci de Brito Neves/ 55-9188019288/ Contato.belem@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튼/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센터/ ottawacentre@gmail.com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pb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17-0946/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i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라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타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yahoo.com  
산타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gmail.com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5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mexicali.center@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l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니카라과:  
마라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6673-2220/ mrleone2@yahoo.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981-836314/ emilce\_cespedes@hotmail.com  
시우다드델에스테/ Mr. and Mrs. Italo Acosta/ 595-578571, 595-983614592/ italoacostaa@hotmail.com  
★ 페루:  
아리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gmail.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oncentro@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3565176/ teresita41@hotmail.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1-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하요/ Mr. & Mrs. Raul Segu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Ms. Dianela Carola Diaz Ferreira/ 58-4168605497/ dianel33@yahoo.es  
★ 미국: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애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christophers2@cox.net  
§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lw31@yahoo.com  
새크라멘토/ Mr. Thi Thai Le/ 916-799-7768/ thaivegi@yahoo.com  
새크라멘토/ Mr. Tuan Minh Le/ 1-916-226-9197/ tuanmin@yahoo.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lcenter@hotmail.com  
새너제이/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ico@yahoo.com  
새너제이/ Mr. Jingwu Zhang/ 1-408-505-5824/ jingwuzhang@hotmail.com  
새너제이/ Ms. Mai Thanh Phan/ 1-408-603-5037/ smthanmai@yahoo.com  
§ 플로리다:  
잭슨빌/ Mr. David Tran/ 1-904-285-0265/ jax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울랜더/ Mr. Johnny Scott-Meza/ 1-407-529-7829/ scottmezaJohnny@yahoo.com

§ 조지아: 센터/ georgiacenter@hotmail.com  
Mr. Roddell Pleasants/ 1-678-429-7958  
Ms. Kim Dung Thi Nguyen/ 1-404-422-1431  
§ 하와이: Mr. Neil Trong Phan/ 1-808-398-4693/ neilphan@gmai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nitz/ 1-317-842-8119/ josiepoeb@sbcglobal.net  
§ 캔터키: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볼티모어/ Mr. Pete Theodoropoulos/ 1-410-667-4428/ petetheo1111@hotmail.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842-0262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콜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rmst.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Mr. Hero Zhou/ 1-973-960-6248/ yb\_zhou@hotmail.com  
Ms. Lynn McGee/ 1-973-864-7633/ lynn.mcgee@yahoo.com  
Ms. Bozena Chetnik/ 1-973-896-8659/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Mr. Fred Lawing/ 1-704-614-4397/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하이오: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931-4699/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사우스캐롤라이나: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474-3492/ smch\_southcarolina@yahoo.com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i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ngdean@yahoo.com  
댈러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댈러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tx.rr.com  
댈러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댈러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2321@att.net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comcast.net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nyuan888@comcast.net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워싱턴 DC/ 센터/ 1-703-997-1622/ VA\_Center@yahoo.com  
버지니아/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y@hotmail.com  
버지니아버치/ Le Thanh Liem/ 1-757-461-5531/ qlyek@yahoo.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미야오리/ Mr. & Mrs. Chen, Tsan-Gin/ 886-37-221618  
미야오리/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i.com  
자카르타/ Ms. Murnial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s.co.id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말랑/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harry\_li@sby.dnet.net.id  
요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62-274-650-7704/ yogyakartawisdom@yahoo.com  
★ 이스라엘: 텔아비브/ Mrs. Talya Tal/ 972-50-8511720/ tal,talya@gmail.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h.biglobe.ne.jp  
도쿄/ Mrs. Hyakutake Toshiko/ 81-90-4923-1199/ binta@k7.dion.ne.jp  
도쿄/ Mrs. Yoshii Masae/ 81-90-6542-6922/ smchllute@gmail.com  
도쿄/ Mrs. Sato Rie/ 81-80-5654-1688/ riesato302@yahoo.co.jp  
오사카/ 센터/ smchtoosaka@gmail.com  
오사카/ Mr. Le Khac Duong/ 81-90-6064-7469/ leduongjp@yahoo.com  
나고야/ 센터/ 81-90-3447-3117/ yumiko-emi@hotmail.co.jp  
★ 요르단: Mr. Jafar Marwan Irshaidat/ 962-7-95119993/ estaphuam@hotmail.com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강진태/ 011-263-3563/ samwonckr@daum.net  
서울/ 류경남/ 011-715-7693/  
부산/ 센터/ 051-334-9205/ chinghaibusan@gmail.com  
부산/ 변환웅/ 010-6657-9736/ byunwhan@gmail.com  
부산/ 김홍련/ 016-571-5433/ rainhong1@hanmail.net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홍성태/ 011-530-5254/ hongst33@naver.com  
대구/ 김정순/ 011-503-4302/ yubabba@hanmail.net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jon@yahoo.co.kr  
대전/ 김선재/ 042-581-3718, 017-425-2390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최병선/ 011-9715-9394/ budat1996@hanmail.net  
광주/ 센터/ 062-525-7607/ smgwangju@naver.com  
광주/ 이민규/ 011-609-2243/ mglee2243@naver.com  
광주/ 김경로/ 017-622-2374/ k2road@gmail.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인천/ 공미희/ 016-475-5303/ kmeehee2000@yahoo.co.kr  
안동/ 센터/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안동/ 김선택/ 010-2507-3047/ ktjb@korea.com  
울산/ 센터/ 052-224-4111  
울산/ 유한주/ 010-5298-6625/ gkswn6625@hanmail.net  
원주/ 센터/ 033-763-9358  
원주/ 정광훈/ 019-369-2509/ funnychong@hanmail.net  
원주/ 김진숙/ 010-4715-2509/ chinskim@hanmail.net  
청옥/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mboon\_9@hotmail.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28532231/ mcdv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28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oldpiong@streamyx.com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klsch@yahoo.com  
쿠알라룸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streamyx.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울란바토르/ Ms. Bolormaa Avirmed/ 976-11-341222/ bolor\_suvd@yahoo.com  
울란바토르/ Mr. Bayarbat Rentsendorj/ 976-99774277/ quanyin\_mongolia@yahoo.com  
코틀/ Mr. Chinsukh Uuter/ 976-99110446/ khlotolcenter@yahoo.com  
코틀/ Ms. Tsenddorj Tserendorj/ 976-99370917/ tsendee\_hutul@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iakss@mptmail.net.mm  
★ 네덜: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75-6609/ phi.loveocean.mnl@gmail.com  
 마닐라/ Ms. Kim Thuy Bich Chau/ 63-917-258-7642/ chauthuykim@yahoo.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ence Fernando/ 94-11-2412115/ smchnirvana@gmail.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c6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bkcctcp@gmail.com  
 방콕/ Mr. Chusak Osonprasop/ 66-081-4816500/ mummykat@hotmail.com  
 방콕/ Mrs. Ratchanan Jintana/ 66-081-7515227/ bkkcpcr@gmail.com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0-332136/ siriwanily@gmail.com  
 콘깬/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Mr. Dhiraj D. Radadiya/ 971-50-318499/ dradadiya@yahoo.com  
 두바이/ Mr. Mahesh Shah/ 971-50-4503514/ map\_shah@yahoo.com

■ 유럽 ■

★ 오스트리아:  
 빈/ 센터/ 43-664-9953748/ qyaustria@googlemail.com  
 빈/ 연락인 사무실/ 43-650-8420794/ ngoodany@yahoo.com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s.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quanyinfosia@gmail.com  
 플로브디브/ Mrs. Miglena Bozhikova/ 359-32-89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98-9706788/ zeljstar@inet.hr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i.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프라하/ Mr. Nguyen Tuan Dung/ 420-608124709/ czech-center@spojenisbohemi.cz  
 ★ 덴마크:  
 오덴세/ Mr. Thanh Nguyen/ 45-66-190459/ ductam@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Astrid Murumagi/ 358-50-596-2315/ helsinkicenter@yahoo.com  
 헬싱키/ Mr. Tri Dung Tran/ 358-40-7542586  
 ★ 프랑스:  
 알사트/ 센터/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lumieretson@gmail.com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몽펠리에/ Mr. Sylvestre Thomas/ 33-4-67650093/ ocean-amour@wanadoo.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family.net  
 ★ 독일:  
 베를린/ Mr. Grigori Guinzbourg/ 49-30-5498-6147/ Grigori.Guinzbourg@gmx.de  
 베를린/ Ms. Hoa Thi Hoang/ 49-30-3083-4712/ Pureocean@web.de  
 뒤스부르크/ Mr. Veithen, Michael/ 49-174-5265242/ dusseldorfcenter@hotmail.com  
 뒤스부르크/ Ms. Tran, Thi Hong Mai/ 49-2162-8907108/ mai\_tran70@yahoo.de  
 프라이부르크/ Ms. Elizabeth Muller/ 49-7634-2566/ elmueart@surfeu.de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뮌헨/ Mr. Nguyen, Thanh Ha/ 49-89-353098/ ha\_nguyensm@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vicky.chriskou@g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부다페스트/ Ms. Aurelia Haprai/ 36-20-2400259/ doraur@gmail.com  
 ★ 아이슬란드: Ms. Nguyen Thi Lien/ 354-5811962/ reykvjavik\_center@yahoo.com  
 ★ 이탈리아:  
 페스카라/ Mrs.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캄포바소/ Mr. Francesca Spensieri/ 39-333-722-5527/ lancy\_jalla@yahoo.it  
 볼로냐/ Mrs. Nancy Dong Giacomozzi/ 39-320-341-0380/ QuanyinBologna@gmail.com  
 ★ 아일랜드:  
 더블린/ Mrs. Hsu, Hua-Chin/ 353-1-4865852/ smch\_dublin@yahoo.co.uk  
 더블린/ Ms. Kathleen Hogan/ 353-87-2259619/ dublinquanyin@gmail.com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ginka\_5@yahoo.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알코바카/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jvcaldeira@clix.pt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9104659738/ moscowcenter@rambler.ru  
 모스크바/ Mr. Oleg Dmitriev/ 79165763796/ moscowcenter@mail.ru  
 ★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Ms. Maja Mijatovic/ 381642748820/ majazemun@yahoo.com  
 ★ 슬로바키아:  
 질리나/ Mr. Roman Sulovec/ 421-903100216/ roman.sulovec@spojenisbohomi.sk  
 ★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류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forevershinelove@gmail.com  
 마리보르/ Mr. Rastislav Alt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to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 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발라가/ Mr. Joaquin Jose Pretel Lopez/ 34-646843489/ joprelo@hotmail.com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s. Wenqin Zhu/ 34-96-3301778, 34-695953889/ valenciachinghai@yahoo.es  
 발렌시아/ Mr. Jose Luis Ordena Huertas/ 34-653941617/ joselorduna@gmail.com  
 ★ 스웨덴:  
 앵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den@gmail.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3-38097, 46-70-6219906/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rsula\_klein@bluewin.ch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hotmail.com  
 암스테르담/ Mr. Roy Mannaart/ 31-653388671/ r.mannaart@planet.nl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임스워치/ Mr. Zamir Elahi/ 44-7843-352919/ zamir.light@g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londonukcentre@googlemail.com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런던/ Mr. Danny Ejayese/ 44-7949798310/ danny\_zen@yahoo.co.uk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isshop/ 61-7-3901-7038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l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gmail.com  
 캔버라/ Ms. Jayita Belcourt/ 61-4-0976-1005/ jayita@amrita.com.au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bo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rm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kchor@netspace.net.au  
 미드노스코스트/ Mr. Eino Laidsaar/ 61-2-6550-4455/ goldenagecenter@gmail.com  
 노던리버스/ 바이런베이/ Mr. and Mrs. Jonathan Swan/ 61-2-6624-7209/ byronbaycentre@gmail.com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시드니/ Mrs. Kathy Divine/ 61-2-9891-5609/ universallove22@yahoo.com.au  
 테드메이니아/ Mr. Raymond Dixon/ 61-3-62233118/ ray\_dixon@bigpond.com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934/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 스승님께 바치는 시

N. P. 구라게인 사형 / 네팔 (원문 영어)

신성한 사랑과 믿음으로  
당신과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생사를 넘어  
나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스승님,  
나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 나비의 아름다움  
오, 아름다움의 나비  
오, 천국의 여왕  
오, 우주의 여왕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명상 속에 나는 당신 곁에 있으니  
나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우주의 순수한 본질  
오, 평화의 향기  
오, 영원한 지복의 고속도로  
오, 사랑과 기쁨의 햇불  
당신의 발에 경배하며  
머리 숙여  
당신 앞에 꿇어앉습니다.  
오, 나의 스승님,  
나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783 (영어+19개 언어 자막)

신은 밤새도록 우리를 부른다

2007. 2. 21.-24. 포모사 사후 국제 선오

### 주요 내용:

**과** 학자들은 이미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지구 대기에 영향을 준다는 이른바 '나비 효과'를 증명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생각은 인류의 자장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스승님은 부드럽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루미(Rumi) 스승의 시 '신은 밤새도록 우리를 부른다'를 낭송해 주시고 그 시에 담긴 의미와 계시를 해석해 주신다. 또한 당신 자신의 경험을 들어 그 시에 묘사된 신성한 황홀경을 증언하시며 우리도 정말 그와 똑같이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길 바라신다. 🌸

DVD 746 (영어+16개 언어 자막)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끼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2002. 8. 4./ 8. 17. 캐나다 토론토, 헝가리 센터와의 화상회의

DVD 763 (영어+15개 언어 자막)

영적 수행에서의 자기 단련

2002. 9. 28./ 10. 6./ 10. 7.

미국 보스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독일 함부르크 센터와의 화상회의

### 주요 내용:

**이** 화상회의에서 스승님은 동수들의 수행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해 주신다. 명상하는 동안 스승님의

불찬을 듣거나 앞에 스승님의 사진을 놓아두어도 계속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만물 동일체의 느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가? 드라마에서

고통 받는 역을 하는 배우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영혼도 이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롭다는 의미인가? 영혼이 계속해서 윤회하고 고통 받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명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개성과 업이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가? 이번 생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명상에 들이는 시간과 집중의 정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스승님은 사랑이 넘치고 통찰력 있는 답변으로 동수들의 고민을 풀어 주시고 영성의 길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격려하신다. 🌸





#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779** (중국어+17개 언어 자막)

**봄 노래 모음집**

2007. 2. 24. 포모사 시후 국제 선오

**주요 내용:**

**2** 007년 음력설 국제선이 끝난 후, 스승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맛있는 바비큐를 즐기고 이어서 포모사·중국·어울락·몽골·한국, 여러 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전통 민요를 함께 부르며 멋진 저녁을 보내셨다. 한 곡 한 곡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멜로디 따라 흥겨움과 웃음이 가득 퍼지고 모두들 신의 사랑에 감싸였다. 이런 지복 속에서 스승과 제자는 기뻐하며 축하하며 함께 신나게 즐겼다. 정말 더없이 즐겁고 잊지 못할 한바탕 음악 축제였다! 🌸



**DVD 766** (어울락어+15개 언어 자막)

**순수한 동기로 선행사에 참가하라**

2002. 12. 25.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침묵 선오

**DVD 767** (중국어+15개 언어 자막)

**깨달은 스승의 역할**

2002. 12. 25.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침묵 선오

**DVD 768** (영어+14개 언어 자막)

**신의 말에 귀 기울이면 생활이 더 단순해진다**

2002. 12. 26./ 12. 28.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침묵 선오

**주요 내용:**

**이** 크리스마스 선오에서 스승님은 심오하고도 깨우침이 가득한 몇 차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수행을 되돌아보라고 하시며 보다 빨리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루 중 최고의 시간은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명상하면서 신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스승님은 당신의 행복 철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수록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주면 줄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두 배나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스승님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명상에 집중해 깨달음을 추구해야 함을 설명하신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도움을 주려고 할 때마다 문제만 일으킨다는 것이다. 스승님은 모두에게 100%의 깨달음을 얻으라고 격려하시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

